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황병태
편집인 겸 발행인 남성우
편집장 양정철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직통전화962—7128) 외대학보 (직통전화965—7048)
13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두영

제435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6년 3월 11일 (화요일)

새 민주역군맞이 한마당

"시대고를 딛고 해방의 그날까지"

10일 강연회로 시작, 11~13일 학생총회 각단대별 행사

14일, 양캠퍼스생 삼민광장서 대동놀이 한마당

"민족아해 하나되고 민주아해 한뜻되어"란 기치아래, 신입생환영행사가 3월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닷새동안 열린다.

3월10일 오후 3시 초청강연회로 시작되어 「외대 새민주역군맞이 대동놀이」로 마치게될 이번 환영행사의 세부일정과 내용을 낱낱낼로 보면,

3월 10일(월)

서울캠퍼스와 경우 오후3시부터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제도교육과 이데올로기" 를주제로 한 노승우교수 초청강연회를 비롯, 영화연구회 「울림」의 영화상영, 판화전시회등이 준비되어 있다.

용인캠퍼스는 오후2시부터, 길놀이, 왕산신입생 장사선발대회등이 있다.

3월 11일(화)

서울캠퍼스는 오후 2시시부터 「86년 1학기 정기학생총회」가 삼민광장에서 열려 86년도 총학생회 방향성과 현시국에 관한 전외대인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동양어대의 한마당이 오후4시부터 대강당에서 벌어지며, 신입생 장기자랑, 「현실인식을 위한 제언」등으로 엮어진다.

또한 민속무대로 태국어과의 앙가라 연주와 터어키과의 민속춤도 공연된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정기총회와 함께 사회대의 한마당이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열리며 과대항 노래자랑, 도시빈민및 강제철거민의 생활고를 담은 연주 「집을 지세」 공연등이 준비되어있다.

3월 12일(수)

서울캠퍼스는 「민주외대의 품안에서 민족통일의 그날까지」란 기치의 서양어대 한마당과 사범대, 아간강좌의 한마당이각각 있을 예정이다.

서양어대 한마당은 오후3시부터 대강당에서 열리며, 서양어대 학회의 상황극과 독어, 서어, 불어과의 음악제등이 계획되어 있다.

사범대 한마당은 오후4시부터 대학원 소강당에서 벌어지며, 학생자치활동 소개시간등을 갖는다.

아간강좌 한마당은 오후6시30분 소강당에서 열리는데, 각학과별로 특성살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문리대의 경우 오후 2시부터 서울캠퍼스 대학원 소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용인캠퍼스는 총학생회주최로 오전11시30분부터 2시간동안「이땅을 살아가는 지성인의 자세」를 주제로 한 여동찬(F과)교수의 초청강연회를 준비했다. 또한 어문대도 4시부터 대강당에서 민족춤과 원어노래등을 계획하고 있다.

3월 13일(목)

서울캠퍼스의 경우, 법정, 상경대의 한마당으로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열리며, 「한국경제의 실상보고」, 「한국정치상황 토론」 시간등을 계획하고 있다.

용인캠퍼스는 오후4시 대강당에서 총학주최로 발춤, 풍바바펑을 내용으로 한 선·후배의 한마당 큰잔치가 있다.

행사마지막날인 3월14일(금)에는 서울, 용인 양캠퍼스 학생들이삼민광장에 모여 「외대새민주역군맞이대동놀이」를 벌인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길놀이, 고사, 풍물놀이, 노래춘극, 패싸움놀이, 탯을의식순으로 진행된다.

패싸움놀이는 민주정치패와민족통일패로 나뉘어 벌어지며, 4박자춤, 압제바구니 퍼트리기, 대장기뺏기등의행사로 엮어진다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결속하는 탯임의식을 끝으로 모든 신입생 환영행사의 막을 내린게 된다.

한편, 신입생 환영행사 기간중 휴강여부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단대별 행사중엔 당일 행사시간에 한해, 14일에는 전면 휴강이 되도록 학교측과합의, 결정하였다.

1학기 추가등록 실시 3월 8~24일까지

86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이 3월8일(화)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해당학생은 방학중 이미 발송된 등록금 고지서를 참고, 구비해 제일은행 본점이나 각지점에 납부하면 된다.

단, 고지서 분실자나 미수령자는 경리과에서, 복학자및 9회이상 등록자는 학적과에서 별도 배부받으면 된다.

다음 추후등록은 없다.

어문대학생회 출범식 가져

용인캠퍼스 어문대 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3월5일 오후3시 학생회실(1209)에서거행되었다.

여인혁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병진 아간강좌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60여명과 어문대 최종수(E과학장등이 등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어문대 학생회장 김재석(F·3)군은 제문낭독을 통해 『왕산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깃들길 바라오며, 우리 어문인이 찬연한 민족사를 밝힐 주역이 되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조기졸업 11명

학적과는 조기졸업신청자 11명의 징계결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접수 3월3~31일

학생처는 86년 아르바이트 희망자 신청기간을 3월3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 발표했다.

해당학생은 학생증과 등록금영수증, 증명사진(3×4) 1매를 구비해 학생과나 아간강좌 교학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86년도의 경우, 이번 3월 신청기간에만 한해 접수한다.

용인, 사운드라이브러리 수업증지 부착제로

용인캠퍼스 사운드 라이브러리 녹음복사 수수료가 86년 1학기부터 현금납부제에서 수업증지 부착제로 대체되어시행된다.

신청학생은 녹음복사 수수료(녹음 테잎 1개당 5백원)에 상응하는 수업증지를 서무과에서 구입한 후, 사운드 라이브러리녹음 신청서 금액란에 부착해 신청하면된다.

도서 대출증 검인 재발급 실시

도서대출증 검인이 3월15일까지, 재발급은 3월17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실시 된다.

용인의 경우 검인기간은 3월1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재발급은 1, 2차로 나누어 발급하는데 1차기간은 3월15일까지 2차기간은 3월24일부터 29일까지다.

단, 재발급은 전학기에 분실한 학생에 한해 가능하다.

용인 캠퍼스 학생총회 무산

용인캠퍼스 신입생 환영행사 첫날인 3월10일(월)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학생총회가 총학생회의 홍보미비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무산되었다.

한편, 길놀이와 왕산달내 장사선발대회 역시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마쳤다.

◇「외부인 출입통제」·열린 캠퍼스와 닫힌 사회, 억압구조에 최석화된 민주의 외침은 또 다른 이 시대질곡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통치체제 매개물로서의 오도된 대학이기를 거부하는 캠퍼스의 자율의지는 「새민주 역군 맞이 한마당」으로 시작됐다.

<사진=김애리자기자>

사 령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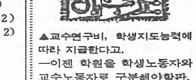
취재·기획부장 : 황하일(어문 E·3)
논설·조사부장 : 문상연(상경 EC·3)
학술부장 : 이정원 (어문Sh·3)
사회부장 : 박영미(서양F·3)
문화부장 : 송지현(동양J·3)
사진부장대우 : 이광문(동양C·3)
〃 : 김애리자(사범GE·3)
취재차장 : 차재훈(동양J·2)
사회차장 : 홍창형(어문MI·2)
문화차장 : 김향희(어문 R·2)
기자 : 장남용(어문 R·2)
임재형(법정 IC·2)
이주진(법정 IC·2)
이화택(서양 G·2)
김학준(상경 EC·2)
장은영(어문 A·2)
류재학(서양 R·2)
<이상 17명>3월4일자

면

논설위원 : 김경환(어문 E·4)
임기만료로 사임

논설부장 : 이원목(서양 E·3)
학술부장 : 이경희(서양 G·3)
기자 : 김상수(법정 L·2)
윤석양(서양 R·2)
이석문(어문 F·2)
수습기자 : 장남식(동양 C·2)
배희인(어문 S·2)
원에 의해 사임
<이상 7명 2월 28자>

외대학보



▲교수연구비, 학생지도능력에 따라 지급한다고.
—이젠 학원을 학생노동자와 교수노동자로 구분해야할판.
▲아시안게임중 5대도시 대학휴교
—휴교하면 휴식할땐 알겠지만….
▲3월10일은 노동자의 날 (May day)
—밟아도 밟려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노동자여!

36기 수습기자 모집

말 못하는 우리시대. 그러나 허잘린 만신창이 민주는 다시 살아, 오도된 역사를 바로잡을 쟁일없는 비판과 실천을 외치고 있음니다. 어두운 암계의 시대속에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자를 찾습니다.

△자 격 : 1학년 재학생
△모집부문 : 일반기자 ○○명
사진·컷기자 각○명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응시원서, 사진 1매
△원서배부및 접수처 :
서울—학생기자실(학생회관3층)
용인—학생기자실(제4강의동402호)
△원서접수기간 : 3월4일~3월19일
△시험과목 : 1차필기시험—국어(한문·기사작성포함)
상식·논문(사진·컷기자 실기포함)
2차면접시험—1차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시 : 1차—3월19일 2차—3월20일

외 대 학보

▲필리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필리핀의 정치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말로 되씹어 내뱉고 무언에를 삼킨 것 같다. 이러한 국민 여론의 틀은 분위기는 단순히 남의나라 흥미거리 차원을 넘어선 동병상련 (同病相憐)의 입장이 강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어쨌든 그동안 정치적 혹구불만에 가득 찬 우리네 서민들은 필리핀 사태가 외세 외면되어있다든지 필리핀에 해결해야될 난제가 산적해있다든지 따위에는 관심이 멀한것같다. 단지 20년 장기독재자의 최후의 모습만이 아직까지 우리의 화제인저리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필지난 해가갔지만 마르코스 정권이 계속적인 장기집권을 할수있는 방법에는 몇가지 수단이 있었다.

하나는 헌정을 중단시키는 방법이고 또하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이며 세번째는 합법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집권의 연장이다.

헌정중단은 친위무데타나 국회를 해산하고 헌정을 일정기간 폐지해 버리는 방법인데 이것은 세계 여론의 압력, 국민정치역량의 성숙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이 좀더 실효성을 갖는다.

먼저 개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선 합법적으로 정권을

「한국은 필리핀과 다르다」

교체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마르코스는 자기가 속해있는 신사회당 (KBL) 내의 권력개편을 통해 정권을 승계할 수가 있다.

또 한가지는 헌법을 들어고쳐서 계속 눌러앉든가 아니면 코라손의 민주야당연합(UNIDO) 과의 타협을 통해 국정 (國政) 의 대내, 대외 업무를 나눠가지면서 정권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마르코스의정치 시나리오가 관철되기위해서는 몇가지 선결조건이 전제되어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물적토대를 정비하고 대중통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했다.

그러나 이러한방법들이 그리 용이한것만은 아니다. 정치·경제적 모순구조의 심화와 세계 여론의 압력, 그리고 의식조차에 농락되지않을 성숙된 국민의 정치여망은 이 같은역사의 반동에 거센 반발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세인 (世人) 의 이목이 집중됐던 필리핀 사태도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간듯한느낌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 예외인것 같다. 「한국은 필리핀과 다르다」 따위의 변명을, 그것도 미국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현체제의 정치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할때 서글픈생각마저 이든다. 치닫고 있는 역사의 반동속에서 작금의 역압구조를 뛰돌어 볼수있는 밝은 눈을 가져야겠다.

<황하일>

신입생 입학식 시위관련 3명 구속

학교측, 징계대책에 공전 거듭

3월3일 신입생 입학식날 시위로 연행된 임용철(상경EC·3)군과 김미영(서양H 82학번)양 2명이 3월5일자로 구속되고, 김성민(법정D·4)군은 6일자로 재구속되었다.

김성민군은 3월4일 청량리 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경찰과 학교측의 외견교란을 통해 협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각되었다가 다시 6일 구속영장이 재신청됨으로써 재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측 한 관계자는 『3월4일 오후4시경 교무회의를 열어 이들 학생들의 징계대책을논의하였으나, 공방전에 그쳤을뿐 일간신문에서 보도된 임용철군에 제적, 김미영양은 무기정학의 징계결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접수 3월3~31일

학생처는 86년 아르바이트 희망자 신청기간을 3월3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 발표했다.

해당학생은 학생증과 등록금영수증, 증명사진(3×4) 1매를 구비해 학생과나 아간강좌 교학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86년도의 경우, 이번 3월 신청기간에만 한해 접수한다.

용인, 사운드라이브러리 수업증지 부착제로

용인캠퍼스 사운드 라이브러리 녹음복사 수수료가 86년 1학기부터 현금납부제에서 수업증지 부착제로 대체되어시행된다.

신청학생은 녹음복사 수수료(녹음 테잎 1개당 5백원)에 상응하는 수업증지를 서무과에서 구입한 후, 사운드 라이브러리녹음 신청서 금액란에 부착해 신청하면된다.

도서 대출증 검인 재발급 실시

도서대출증 검인이 3월15일까지, 재발급은 3월17일부터 27일까지 각각 실시 된다.

용인의 경우 검인기간은 3월1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재발급은 1, 2차로 나누어 발급하는데 1차기간은 3월15일까지 2차기간은 3월24일부터 29일까지다.

단, 재발급은 전학기에 분실한 학생에 한해 가능하다.

용인 캠퍼스 학생총회 무산

용인캠퍼스 신입생 환영행사 첫날인 3월10일(월)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학생총회가 총학생회의 홍보미비와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무산되었다.

한편, 길놀이와 왕산달내 장사선발대회 역시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마쳤다.

졸업시험, 논문일정 발표

85학년도 후기졸업 예정자

85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 졸업시험및 졸업논문 제출일정이 확정, 발표되었다.

졸업시험을 보는 서양어대(불어과 제외), 동양어대, 사범대(한교, 불교과 제외) 의 경우 일반과목 (필수, 선택) 은 4월11일에, 언어실습및 회화는 12일에 각각 실시된다.

응시원서 제출기간은 3월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해당학과장실에서 교부, 접수한다. 졸업시험시간표는 4월1일에 당대학 게시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법정, 상경대, 서양어대(불어과), 사범대(한교, 불교), 철학과의 졸업논문 대상학생은 졸업논문을 5월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실에서 배정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수 있다.

단,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된 학생이 만약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졸업시험및 졸업논문통과는 무효가 되며, 81학년도 이후 입학자인 후기졸업대상자는 전기졸업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玄岩新書

*東西고전의 현대화, 최신지식의 체계화!

1	韓國人	尹東祐著/3,400원
2	韓國學	東亞文化硏究所編/5,400원
3	牧民心書	李乙浩譯/4,200원
4	茶山의 思想	李佑信編譯/3,400원
5	慶州錄	南晩星譯/3,800원
6	明心寶鑑	李東歡譯/3,800원
7	고려가스케치	게일著/3,600원
8	新譯 莊子(上)內篇	安東林譯註/4,200원
9	熱河日記	朴珪壽著/4,600원
10	社會科學의 方法論	李東洛外編著/3,000원
11	文章의 技術	朴木月著/3,600원
12	哲學의 理解	S. E. 프로스트著/4,600원
13	性과 知性	틸리 헤슨著/3,400원
14	人生論	톨스토이著/3,000원
15	相對性原理	코흔 엔슈타著/3,000원
16	核戰爭	펠프 넬슨著/3,000원
17	未來學	李山堤一著/3,400원
18	孔子의 思想	林語堂著/3,400원
19	韓國의 生涯와 思想	朴敬勳著/4,000원
20	實學思想의 探究	高麗大亞硏編/4,000원
21	法句經	金達鎭譯/4,500원
22	唐 詩	李元寶譯註/4,800원
23	新譯 易子	李元寶譯註/3,600원
24	青年文化論	李庭植著/3,400원
25	朱山學의 理解	李乙浩著/3,400원
26	韓國의 思想家 12人	韓一徹外著/4,800원
27	唐 詩	韓寶昇譯註/4,600원
28	哲學의 즐거움	쉴 듀랜트著/4,000원
29	文心雕龍	黃康淵譯/4,600원
30	選擇論集	尹絲淳譯註/4,200원
31	藝術哲學	톨스토이著/3,000원
32	鈍江·靈谷·孤山의詩歌文學	朴晟圭著/3,600원
33	秋史集	閔泳煥譯註/3,600원
34	精神力의 革命	달 카스터著/4,200원
35	龍家의 理解	張伯謙著/3,400원
36	新譯 荀子	尹丕榮譯註/4,800원
37	新譯 韓非子	南晩星譯註/3,000원
38	孫子兵法	南晩星譯註/4,200원
39	茶根譚	趙正煕譯註/4,000원
40	經濟學批判	칼 마르크著/3,600원
41	敎育·敎學論의 智慧	石田梅岩著/4,000원
42	華嚴經의 世界	玉城康四郎著/4,000원
43	阿含經이야기	增谷文雄著/4,000원
44	미란다王問經	石上善應著/3,400원
45	運慶佛의 世界	田村芳朋著/4,000원
46	아시아의 드라마	뮈르달著/4,600원
47	文化·속의 敎學	金容雲著/3,400원
48	漢文講讀	張健浩著/4,000원
49	新譯 佛敎文學硏究	金富子著/3,600원
50	新譯 老子	金敬琡譯註/4,000원
51	貧困의 挑戰	뮈르달著/4,000원
52	돈—그 歷史와 展開	갈브레이드著/3,600원
53	文藝批評의 原理	리챠즈著/3,600원
54	新譯 列子·管子	李元寶譯註/4,000원
55	풍요한 社會	갈브레이드著/3,400원
56	古典의 바다	李炳注外著/4,000원
57	國語 韓國史	孫弘烈著/4,600원
58	密 敎	韓智賢著/4,000원
59	經濟學과 公共目的	갈브레이드著/3,400원
60	古代社會	모오건著/4,000원
61	新譯 莊子(中)外篇	安東林譯註/4,600원
62	新譯 莊子(下)雜篇	安東林譯註/4,400원
63	不確實의 時代	갈브레이드著/3,400원
64	新譯 碧巖錄	安東林譯註/4,600원
65	多國籍企業	바논著/3,000원
66	新譯 金剛經五家解	金容沃譯註/4,400원
67	미국民主主義의 딜레마	베리테著/3,000원
68	韓國의 茶文化	金富子著/3,400원
69	韓國의 名畫 ❶	朴銀瓊外執筆/4,000원
70	韓國의 名畫 ❷	朴銀瓊外執筆/4,000원
71	韓國의 名畫 ❸	朴銀瓊外執筆/4,000원
72	한국현대문학사담방	김윤식지음/6,500원
73	한국문화연구	김인호외著/2,000원
74	韓國儒學論究	尹絲淳著/5,000원
75	최입마국❶	趙守鎭外著/5,000원
76	최입마국❷	呂石基外著/4,000원
77	최입화국	羅英均外著/4,000원
78	水滸의 思想과 歷史	최병식지음/4,000원
79	신선지리학	최윤식지음/4,500원
80	小說의 分析	보톰스外지음/5,500원
	프랑스哲學講義	질카베지음/근간
	意味의 意味	리챠즈外지음/근간

현암새책

*저자만 알려이 있는 생각들

1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 한국문화비평著/임희섭著/1,300원
2 레비스트로스와의 대화 — 人類學者와의 對話錄/사르보니에著/1,300원
3 3·1독립운동의 사회사 — 역사와 민중의 의미상析/신용하著/1,200원
4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제국주의 — 문화지배론이란?/살리著/1,300원
5 정치와 문화 — 인간·사회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은?/노재봉著/1,300원
6 대중문화의 신화 — 참된 민중문화의 가능성을 타진!/스캔우드著/2,000원
7 한국문화에 미친 미국문화의 영향 — 高大亞硏編/1,600원
8 문명의 실패와 인간의 운명 — 사상에서의 변라장상!/베르자예프著/1,300원
9 탈춤의 사상 — 傳統劇연구, 한국사상의 재조명!/채희완編/2,200원
10 엘렘트로닉스시대의대중문화 — 문화비평서/강현두/1,400원
11 언극과 사회 — 언극을 통한 사회상析, 실험예술서!/피스카토르著/2,200원
12 볼테드르프 — 百年前 '개방의꿈'를 통해보는 韓國史!/김재원編著/2,000원
13 한국사회학의 반성 — 한국문화의 전통과 특질은?/강신표著/2,000원
14 예술행정론 —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행정입문서!/피드카著/1,800원
15 문화 사회학의 방법 — 문학사회학에 대한 새개념 해석!/골드만著/1,500원
16 1985년 가을 ■ MOOK — 김주연外著/2,500원

급변하는 실천적 문화론 총서. 이 시리즈는 매년 가장 박력한 批評들을 선정 수록한다!

나무 오르기 ●1976-1985 한기찬 詩集

1980년 동안, 한때 「시운동」 同人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젊은 시인의 첫 詩集. /총62편 수록/값 2,400원

名著 名作의 産室

玄岩社 서울마포구아현동627의5 362-5022·5033·5338

'귀신들린 책'

이소설은 쓴 작가 황석영은 연재 10년 동안을 〈장길산귀신〉과 씨름하다보니 〈신들려서 산지난10년〉이라고 합니다. 또이소설을 읽은 사람의 한결같은말이 〈할일이많은데…벌써 며칠째 발을 새웠어〉하면서도 이 소설을 손에서 놓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소설은 첫페이지를 펼쳐든 바로 그순간부터 대합우리를 사로잡고 맙니다. 그리하여 숨쉴 겨를도 없이 단숨에 이 소설의 첫페편을 읽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들배면, 새벽편을 잇달아 읽지 않고는 못배기게 합니다. 따구나 이소설은 지난 시대의 옛날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고있는 겨금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두고두고 여러 계층의 많은 독자들을 배복시키는이론바 입에서 입으로 전해는 〈통쉘리〉의 표본입니다. 특히 이소설은 가슴을 울렁 에수와 회한, 비감과 전율, 격정과 박진감으로 우리들을 온통 뒤흔들어놓은 다음 마침내 여러날 여러달을 신들리게 하고 맙니다.

黃晳暎/作 대하장편소설

長吉山

전10권 각권 3,200원

사설

바른비판과 보도가 언론의 자세
—당국의 대학언론 탄압을 보고

최근 문교부당국은 대학신문의 편집·기획·제작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현 학부생중심의 대학신문사체제를 대학원생 중심제로 바꾸고, 선도적 이념매체로서의 저널리즘성격을 학술활동을 중심으로하는 아카데미즘으로 그 성격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해묵선전하여온 「대학신문의 파행·용공 이론수용과 대사회비판기능을 일반학생들에게 전파시킨다」는 이유에서의 음성계인 간섭이 양성화된 탄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신문제작과정의 검열강화 및 제작된 신문의 배포금지라는 탄압에 대학신문기자들이 반발하면서 대학신문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그간 사회제도순응을 극복하고 대사회비판기능을 담당하여온 대학신문의 역할을 축소·제어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대학의 언로(言路)를 관제화·어용화시키려는 조치이다.

대학본연의 임무, 즉 학술탐구를 통한 대사회비판기능을 수행하여 이당의 역압받고 짓밟힌 사람들의 동등한 자유·평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당위성을 차치하고라도 당국의 일련적이고 미시적인 간섭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연 대학신문이 극렬좌경화되었는가 하는것도 한국사회구조속에 배태되어 있는 모순과 그 누적됨을 생각하여 볼 때 그 저의에 의심이 간다고 하겠다. 아카데미즘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도 시사성있는 사회문제를 배운 바 학문을 바탕으로 보다 학문적으로 깊이 분석하여 학술성과 시사성이 서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연구발표의 기능을하는 학술지나 학회지라는 성격만을 뜻하는것이 아니다. 이는 대학인이 겸하는 모든 학문이 정치·경제·사회 문화일반등 인간의 사회생활을 총체적으로 표현·규명하는 것으로 학술성과 시사성과의 구분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대학신문에 대한 학술성의 요구는 곧 대학신문이 가지는 당위성과 실천성을 부인하고 대학의 본질, 더나아가 대학의 자율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대학신문은 대학신문다와야 한다. 이는 현재 제도권내 제도언론의 진실왜곡을 거부하고, 사리사욕적이며 안이한 제도언론인들의 자세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알려야 할 것을 알리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만드는 언론자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70년대 관제언론과 80년대 제도언론에 의해 희생된 언론자유를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극복하고, 제도적 장치의 압박으로 인해 저는 민중의 생활고를 알려 「더불어」살수있는 사회가 오도록 노력해야 진정한 자유언론은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당국의 대학신문 탄압조치에 대해 대학언론은 대학인의 자세를 수렴하고 표출하여가면서 실천지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될것이고 이에 대한 당국의 올바른 대학언론관 또한 요청된다.

과학적·실천적 분석을 통해 진정한 자유언론을 대학인 모두가 수호할때 대학과 대학신문의 위상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작업환경속의 산재 왕국"

김 영 문
(고대 대학원박사과정·노동법전공)

Ⅰ. 이끄는 말

공장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있다. 이를 근로자들은 고도로발달된 산업사회의 발은 전망과 함께 열악한 작업환경, 유해한 화학물질, 기계작업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상질병, 사망이라는 위험에 직면해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전선에서는 매일 5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을받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없기 때문에 산업전선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해야만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1973년에서1983년사이에 산업재해로인한 사망자는 약 13,000명, 신체장해자는 약 130,000명, 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는 약백만명에이른다는 사실을볼때, 6.25로인한 사상자가 45만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지난 여러차례의 경제개발기간동안 전선없는전쟁을 두번이나 치뤘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에대한 인식은 다른 여러가지 노동문제에대한 인식못지않게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있다고 할수있다. (산업재해자 156,972명, 손실액 4,857억원·1983년)

Ⅱ. 산재의 정의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는 임금을 목적으로 기업주에게 종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노동과정중에 돌발적사고로 입은 부상, 사망 이외에 일정한 직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동안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돌발적인 사고없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인 직업병, 기타 공해, 교통재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적인 의미의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법적인 의미의 산업재해에서 중요한 요건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Ⅲ. 산업재해의일반적 원인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사고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재해사고와 재해원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이와같은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에 관해서는 학자에따라서 상이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시간상 사고발생에 가까운 직결적 원인과 사회적 환경(예컨대 근로자의 생활태도, 가정사정, 개인적 습성 등)을 근거로한 간접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물적 원인에는 기계및 설비의 구조불량, 동력전달장치의 불량, 안전장치및 안전기구의 불비및불량, 작업장의 협소, 재료 또는 취급품의 부적당 등이 이에 속하며, 인적 원인에는 작업미숙, 작업지식의 부족등의 관리상의 원인과 정신적 부적필, 경솔·착오등의 심리적 원인, 피로·수면부족 등의 생리적원인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공학적·기계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 근로자의 심리적 또는 생리적 원인을 포함하는 인간적 원인이 동시적으로 병합하여 발생하는 것일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있다. 즉 산업재해는 시설의 불안전, 유해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야간작업, 저임금과 낮은 생활수준,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 부자연스런 인간관계, 실업의 위협, 생활 및 정신상의 불안정 등이 서로서로 다른 비중을 지니면서 상호간에 결합되어 법칙성·필연성을 가지고 발생된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재해원인의 정태적 분석과 유형화가 산업재해예방·방지의 근거가 되며, 실제로 공학적분석을 기초로 한 정량·정성(定性)적 분석이 산업재해방지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산업재해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기계제 생산양식에 있어서 사용자의 절대적 이윤추구정신에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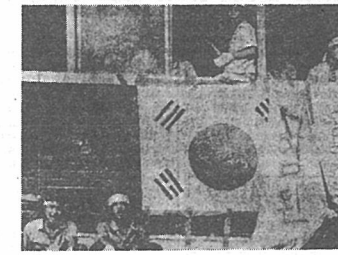
산업재해발생은 기계적 생산의 기술적 한계가 하나의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윤추구가 상품생산의 목적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술과 기계는 보다 많은 이윤획득을 위해서 사용될 뿐 근로자측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며 노동강화나 노동시간의 연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재해예방과 관련된 안전시설과 장치가 부착된 기계에 충당되는 불변자본을 가능한한 감소시키려 하며, 공장과 사업장에 기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는 사용자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노동강화와 노동시간의 연장수단으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계설비에 의해서 작업이 단순화됨으로써 종래 숙련노동자가 담당하던 작업이 미숙련노동자들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사용자는 절대적 학적인 안전관리를 병하는것이 현실이다.

현재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부주의는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작업강화로 인한 과로, 저임금등의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주의력증진을 위한 명목상의 「안전운동」이나, 근로자의 부주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근로조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거나 또한 안전시설·장비에대한 기업주의 적극적인 인식이나 부자없이 「무사고, 무재해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 산업재해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회에서 기술과 기계는 보다 많은 이윤 획득을 위해 사용될 뿐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아

Ⅳ.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차례의 경제개발의 실현으로 산업별 국민총생산의 증가와 구성비의 변화, 취업인구의 증가와 그 구조변화, 경공업에 대한 중화학공업의 상대적 비중증가의 변화가 있었다.

노동부의 자료 (다만 이통계자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사업의 근로자, 공무원, 선원의 재해와 휴업기간이 3일 미만인 재해, 사용자와 피재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재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 의하여 1978년대에는 산업재해율이 주춤히 증가하다 1979년을 정점으로 하여 1981년까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산업재해방지를위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의 강화와 각종 법률의 제정·시행, 각계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2년부터 다시 저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침체, 가격인하에 의한 수출증대를 위하여 취해온 임금인상억제, 절대적 생산계증속의 심화현상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공해문제가 심각한 업종, 사양산업 등을 선진국으로부터 흡수케하여 유해물질산업의 증가와 함께 직업병과 같은 산업재해발생률가 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지 못하고 대기업에 종속된 하청업체로서 전락된 경제구조하에서는 산업안전시설의 투자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발생은 증가하게되는것이다.

결국 기계제 생산양식에 있어서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산업재해발생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재해발생률의 고·저는 그나라경제구조의 특수상에 기인하는 것이며 특히경제구조의 파행성과 연계된 연쇄반응적 부수현상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

Ⅴ. 현행법상의 문제점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들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유해위험예방조치 등을 의무지우고, 이에 위반할 때에는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책 조치를 강구한 법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생존권보장이념과 무과실제임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후구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정 최저기준확보는 사업장의 특수성, 개성 보다는 보편성·공통성을 기준으로한 것이므로 매우 추상적이며 특성있는 각 기업의 산업재해예방에 그 실효성이 문제시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아직도 10인미만의 영세사업장과 법률로 정한 사업은 강제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는 실정이다.

1984년 기준 보험대상사업의 총근로자수는 4,384,58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재보험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국민보험내지 사회보장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에 의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임금변동률을 또는 실제임금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있고, 요양·휴업·장해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수준이 실제 재해정도에 비해 너무 낮아 경우에 따라서는 피재근로자와 유가족의 생계비수준에도 미치지못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산재등급판정을 행정기관인 노동부가 행하기때문에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실손해의 전보액과 산재보험급등 한 보상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심사와 중재를 거치도록 요건화(근로기준법 제90조) 하고 있고 피재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의해합의시켜·화해를해결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수 있다.

Ⅵ.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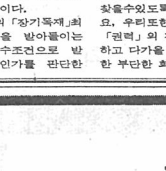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근원적으로 요청되며, 사용자의 적극적인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요망된다고 할수있다.

기술적으로는 첫째 산업안전에 대한 최저기준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업종별실태에 맞는 지도와 권고를 전개해야 하고, 둘째 산업활동의급격한 진전에 따르는 안전문제는 당장 전문기술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셋째 업종별 기술지침의 작성·공표,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권고제도의 도입, 폐쇄기준의 설정 등 행정지도의 강화와 연구부문의 체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넷째 대기업에비해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의 융자제도, 기술적 원조및 지도체계등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한편 노동조합측에서도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개선활동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방지요구도 노동조합활동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는결국노·사·정(政)의 3자협력이 갖추어 질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미네르바

독재와 복종



▲인간은 온갖 순간에, 때로는 무의식중에 복종하고 명령하며, 때로는 복종을 요구하거나 명령을 강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종과 명령의 함수관계에선 필연적으로 「권력」이란 그 매프를 도출해낼수 있다.

단지 권력이란, 우리 주변에서 매우 가까이 일어나고있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매프를도출해내지못할뿐이다.

권력은 오랫동안 무시되고 있던, 오늘도 의식하지 못하는 공기의 무게같은 존재로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권력도공기뿐만 아닌 어떤 물체의 무게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코르크마개가 공기속에서는 무거워서 땅에 떨어지지만 물속에선 가벼워 위로 뜨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권력도 그것을 복종하는사람의 마음속에 「강·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인간은 권력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것을 계속 유지함에는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독재」란 날말이었고 「독점자본주의」니 「독재정치」이라는새모운 어휘들도 생기게 된 것이다.

▲최근, 필리핀의 20년동안의 「장기독재」최후에서 주린 민(民)이 권력을 받아들이는 강·약에 따라 「권력」을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부당한것인가를 판단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단지 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 민족의 정통성을 상실한채 「권력」이 장기화, 독재화되면 필수록 민(民)에 의한 그 종말은 더욱 가혹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민(民)의 「권력」에 대한 「복종」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짓밟혀 쓰러졌고, 약할수록 권력을 바랑으로 세워진 「독재」에 대한 「자유」의 승리를 거둘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유」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역과 불가분의 합수관계에 놓여있는만큼 언제다시 짓밟혀 처절히 찢어질 련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또다시, 권력에의 복종이 강해진다면 만성화되어버릴 민(民)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정을 일삼아온 독재자, 부정부패의 원흉, 정부군을 사병화할 새로운 악마를 기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힘」이 와해되지 않기위해선 「권력」에 대한바른관단으로 민(民)의 소리를 주장할수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은 권력이란 것이 반드시 민에 「의해」행사되는 것이아니라 항상 민에 「대해」행사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페잇거버렌던 민(民)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수있도록 「실천」의 길을열어야 할것이요, 우리또한 참된민주화의 장을열기위해선 「권력」의 강함과 약함의 표리를깊이 인식하고 다가올 신시대(新時代)를 맞이하기 위한 부단한 희생을 치루어야할 때다. <힘>

●젊음이 숨쉬는 우리들의 캠퍼스

SS FASHION

뉴망이 제안하는 뉴맨의 대학생활

멋진 대학생활, 멋지게 보내자

학점의 노예가 되지말라 : 140의 저지선을 돌파하라. 왜냐하면 그것의 실패는 곧 「長学生」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졸업성적표 실시이후 면학 분위기가 정착되어 아바(AB)로 장식해도 결코 뿜낼만한 일은 못되는 현실이다.

크리스한 다윤(CD)이면 그야말로 낙담, 무기 창고(F무성이)가 되면 뿅./대학을 입학 머나이하는 비운을 맛볼은 물론이다. 「F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는 학생은 커닝의 3대 요소라는—감독의 장님화, 책상의 노트화, 눈운동의 원활화—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고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학점의 노예가 되지말고 학점의 주인이 되라. 시대는 당신의 이력을 곧 성적증명서에 박힌 ABCD 그대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그력저력 대학에 들어오면 넓은 문으로 쉽게(?) 나올수도 있었지만 이젠 오로지 실력이 가장 좋은 힘이다. 허위자백서는 금물. ET(이번 학기 탈락자)가 되느냐, ET(이번학기 톱)가 되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자, 한달에 앞은 원서라도 하나씩은 에인처럼 끼고 다니자—.

벽제수도 아니다. 처음부인도 아니다 : 미팅 — 이제는 이것도 벌써 대학인만의 전유물은 아닌듯 싶다. 실제 고등학생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나 고등학교 때의 떡히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불안감 보다는 이론으로서 대접받으며 마음껏 즐기는 대학미팅이야말로 대학인의 필수과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데제수」도 곤란하지만 「처음부인」도 곤란하다. 되도록 인간성이 결여된 졸림, 007밥, 파밥은 한번의 경험으로 족할듯—

보드카를 발견하면 대쉬하는 것도 특권이라면 특권이다. 어느날여학생이 지지각을 했다.

「어떤 남학생이 쫓아와서 늦었어요. 오늘은 늦게 쫓아오는 바람에 —」 경양식이야말로 경제적이지 못한 서양 음식.

돌파 산으로 자연을 여자 삼아 데이트하는것도 더른 의미의 만남인지도 모른다.

내가죽으면 일제히 우는거야—레디고/ 윤전사의 유언은 「내 엔진도 이제 말을 듣지 않는구나」이고 어느 영화감독의 마지막 장면은 「자, 내가 죽으면 일제히 우는 거야, 레디고/」였다. 이정도는 돼야인생이 값어치 있지 않겠는가 — 무엇이 되어야 겠다는 목표는 이미 대학생활을 통하여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서클은 바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졸업생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클을 다니는 것이라고」 공언했을 정도이니까. 한가지 사족처럼 붙이자면 대학내에서 심심찮게 서클 선후배 커플이 눈에 띄는 것도 같은 공감의 기반위에 새로운 삶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결혼은 「결국 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였을 것이다.

오라라 최초의 패션창시자는 의상대사? : 어떤 옷을 입어야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함은 옷에 관한한 활동성이 뛰어난 것이 몸튼 좋다. 한 때는아전절비에 검게 물들인 가난한 고학생 타입의 터프가이 스타일이 유행처럼 눈길을 끌었으나 현재는 개성존중의 시대. 자신만의 길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패션아이템을 찾아라. 화려하기 보다 밝고 신선한 칼라에 촛점을 맞추고 적은 옷으로도 멋지게 코오디네이트할 수 있는 「패션아이」를 가져야 할것이다.

우리나라 패션의 창시자는 의상대사(?)가 아니라 캠퍼스 내의 당신이 될수도 있다. 패션은 자존심—멋진 길을을 멋지게 표현하는것도 대학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또 하나의특권이다.

볼라서 종의 캐주얼웨어—뉴맨

NEW MAN JEANS

중국 역사의 동력 〈2〉

중화주의와 맑스주의

Ⅰ. 진독수와 이대교의 사상적 배경

중국공산당의 창당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진독수와 이대교는 『남진북이(南陳北李)』라 불리웠던 만큼, 진은 상해를 중심으로, 이는 북경을 중심으로 공산당을 주도했던 초기의 공산당 대부였다. 중국공산당의 발전단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투사들의 지적발전과정을 추적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 투사들은 공산당의 실제적 창립자였고 당시 서구화된 지식인 그룹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교사였다.

1919년 이후 진독수는 <민주주의와 과학>이라는 투기중에 의해 세워진 철학에 빠져 있었다. 그의 철학은 모든 형태의 중국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불교와 도교는 급진적이고 반세속적인 편견에 따라 중국의 활력을 마비시켰으며 유교 또한 가족과 사회에대한 의무라는 굴레를 씌워 개인을 질식시켰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결과 피동성과 정체성을 낳아 서구의 도전앞에 무력했던 것이다.

서구의 활력, 정신적 또는물질적 역동성을 어떻게 수용할것인가? 여기에대한 진의 해답이 민주주의와 과학이었다. 이 생각했던 민주주의 개념이란 어떤 것이었던가? 본질적으로 그것은 맨체스터 자유주의 개념이었다. 전통이 개인에게 씌운 속박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있는 자유를 그에게 부여함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민주주의는 개인의 활력을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과학의 역할에 대한 진의 인식은 러시아 허무주의자들의생각과 유사하다. 과학을 통해서 전통사회를 해체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을 정복함으로서 과학의 역동성을 인정함수도있지만, 특히 과학을 미신타파의 무기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허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러한 입장은 과학을 극히 조잡한 형태의 자연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

진독수의 초기사상은 이러한 철학적 신념으로 중국사회를개혁할 수있다고 보았다.

이대교는 근본적으로 다른성향의 인물이었다. 그는 복경대학의 역사교수로 있는동안, 중국적인 요소와 서구적인 요소들의 괴이한 혼합물로 보여지는 의미있는<체계>를 발전시켰다. 이 체계속에는 부처와 굴원(屈原), 그리고 에머슨과 헤겔의 영향이 발견된다. 이 체계의 개요는 그의 에세이 『청춘』과 『금(今)』에서 잘나타나있다.

『실재』란사작도 끝도없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영원히 다함이 없는 흐름이라고 이대교는 말한다. 절대의 차원에서생각할때 이같은 현실의 진행은 오직 하나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의미의 우주에서는 실재는 서로 구별되는 수많은 현상들로 나뉘어 나타난다. 인간은상대적인 현상 세계의 부분이고 이때문에 모든 다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덧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아>는 절대적인 실재의 부분이고 영원한 존재다. <자아>는 우주이고 우주는<자아>가 된다. 그러고 각 현상도 대립현상을 갖는다는 이원성의 원칙이 이 과정을 관통하고있다. <삶과죽음>, <번영과쇠망>, <행복과 불행>. <청춘과 노년>, <건강과 쇠약>이 그것이다.

그가 서구철학의 용어를 자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우리는 강의사상체계속에서 불교굴원 도교의혼재이 강하게남아있음을 발견할수있다. 그후이(李)는 예머슨의 열렬한 낙관주의와 서구의 <정진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기시작하면서, 유한한 생은 덧없다는 비관적(悲 함축과는 딴판으로 그것은 열렬한 낙관주의와 결합을 보게된다.

현상의 세계가 투의미한 유전(流転)으로보이고 질음과 노분(怒憤), 삶과죽음이 서로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것처럼 보여도 우주의중심은 영원히 젊다. <우주는 영원하므로 젊음도 영원하며, 때문에 나도 영원하다> 이영원한 젊음은 현상세계의 모든 변화를 초월한다. <그것은 우주만물이 그 주위를 도는 축이다.>

이대교가 지니고있는 뜻밖의 특징도 그의 시간개념이다. <영원한 유전> <끝없는 변화>를 말하는 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순간의 존재를 부정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철학자들은 과거와 미래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뒤의 견해가 맞는것같다> 고 말했다. <무한한 과거가 현재에서 마지막 실꼬를 찾듯, 현재는 무한한 미래의 연원이된다>. 현재속에서 우주의 젊은 정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재현한다. 세계정신의 부분으로서의 인간정신도 과거의 죽은 악령을 떨쳐버리고 현재에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활력의 낙관주의적흐름은 이가 진화론적 신조를 말아들임으로서 더욱 고양되었다. 우주는 스스로를 재창조할 힘을 가졌을 뿐만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곧 언제나 빛나는 현재안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할 능력을 갖고있다.

에머슨에 있어서 세계정신은 개인의 삶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반면에 이에게 있어서 개인은 오로지 세계정신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결국 그는 개인의 역할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역사적인 힘을 통아하는 편견으로 흐르게된다. 전통 중국사상과 혜겔이 이로 하여금 마르크스주의를 쉽게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중요한 요인이된다.

Ⅱ. 진독수와 이대교의 정치활동

그러나 이대교·진독수 모두 이러한 형이상학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진리의 탐구보다는 더욱 직접적인 일, 즉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우리민족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누적된 과거의 먼지가 역사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그것이 민중의 생명에 사슬을 채움으로서 우리 민족을 국도로 쇠약하게 만들었다. ····세계에 우리가 보여주어야할 것은 옛 중국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활기에 찬 젊은 중국이 태어나는 세력은 중국의 정치·경제생활에 계속 침투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중국의 무력함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탑욕스런 군벌,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혹한 착취행위와 가내공업의 붕괴으로 농민은 절차 헤어날수없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진독수는 중국의 1차대전 참전이 중국의 오랜 혼수상태를 흔들 깨우고 중국을 민주주의와 과학의 길로 들어서게 할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그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레닌이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의 메시아적 메시지를 선포한것은 바로 중국이 이처럼 참담한 상황의 한가운데 놓여있을 때였다. 멀리 떨어져있는 페트로그라드에서 일어난 사건이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즉각적인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은 흥지 않지만, 이대교만은 이메시지에 즉각 회답을 보냈다.

1918년 10월에 쓰여진 「볼셰비즘의 승리」라는 글에서 이는 <10월혁명>을 그자신이 기다려온 우주적 해방의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 혁명은 세계라는 나무로부터 쓸쓸한 가을의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렸다. ····비록 볼셰비즘이라는 말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20세기 인류의 공통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볼셰비즘의 승리는 세계인류 정신의 승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대교가 러시아혁명의 메시아적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마르크시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있다. 「서민의 승리」라는글에서 그는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공통된 정신적 경험의 기록이며 개인적 감정의 변화는 세계감정 변화하고 있었고 주볼쉐는 진정으로 자신을 영국식 길드사회주의자로 자처했으며 모택동은 그자신의 진술에서 나탈나 폴 프랑스에있던 몇명 중국지식인들처럼 한동안 무정부주의 영향아래 놓여있었다. 도서관의 고용인으로서 이대교의 학문세계의 언저리에 앉고있던 모택동은 이대교의 영향을 크게 받게된다.

결국 진독수와 이대교의 지적편력을 되돌아보면 이들이 모두 외식적으로 반전통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빌려 올 찾았음을 알수있다. 그들의 지적 성향이 서고 달랬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내는 해결책을 제시한세계관을 좋아하여 마르크스주의에 끌려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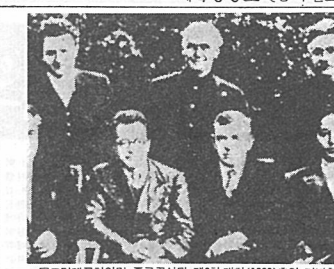
이대교가 그의 나이 30세로 1927년 장작림의 부하에 잡혀 처형될때따라 또다른 사상적 전환을 맞을 기회가 없은채 중국공산당 역사무대에 사라져 버렸지만 진독수는 창당과 함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는찾게된다. 진독수와 볼슈지의 지도노선은 <지역조직과 중앙위원회거들급 지도급 인사들에 반대파(구추백, 장국도) 의 등장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회개최를 연기시키고자 했다> 고 파셀미트는 1927년 4월의제 5차 당대회에서 밝히고있다. 맨틀리얼은 진독수를 공격할때 구추백의 발언을 지주 인용하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27년 8·7 긴급회의에서 진독수를지도부에서 끌어내리고 구추백을 부상시켰던 국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파간의 갈등은결국 볼슈지와 구추백간의 개인적 갈등에 그초점이 모여진다.

진독수의 중심한 주장와얼던 팸슬지의 「중국혁명의기본문제」라는 글에 대한 회답으로 쓰여진 「중국혁명의 논쟁문제」(27년 3월)라는 구추백의 논문은 부하린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스탈린 지도체제는 트롤츠키의 반대에 부딪치고있던 국공합작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트로츠키를 국우파로몰고 국좌파로 하여금 합작을 담당케 하려했다. 트로츠키는 대중을 부르조아지에 넘겨주기를 바랐고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중을 향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구가 평을 반박하는데 사용했던 것은 바로 이 공식에 따른 것이다. 평은 <민족 부르조아지>를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고 국민당을 <매판관료와 봉건군벌주의자>등의 연합이라고 보았다. 구는 이에대해 격렬한 반대를 보였다. 구의 주장에 따른다면 민족부르조아지는 이미 고도의 성숙단계에 들어선 시대에 살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속에서 서구의 부르조아혁명이라는 낡은 길을 따라가서는 러시아혁명을 기대할 수가 없다,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한지만,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서구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체험을 철씬 능가하고있고 한편 러시아 부르조아지는 독재정치때문에 약화되어있다. 부르조아지민주혁명이 일어날경우, 프롤레타리아트는 쉽게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할것이고 <혁명이 승리할경우 정치권력은 부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계급의 손아귀에 반드시 들어오게된다>

그리고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는 필연적으로 부르조아민주주의를 깨트리고 사회주의를향하여 혁명을 진행시킬것이다. 1917년10월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게된 이론적 합리성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독재>라는 자신의 종전 이론보다는 바로 영구혁명 이론에 더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927년 이후부터 영구혁명이라는 용어사용은 이단시 되어 버렸다.



□코민테른회의일 중국공산당 제6차 대회(1928)후의 기념촬영. 이 대회에는 진소우등 중국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글싣는 차례

1. 중국공산주의 명아와 5·4운동
2. 초기 중국 공산주의운동의지도노선
3. 모택동 사상의 전개—신민주주의 국가 제창기
4. 모택동 사상의 전개—건국기
5. 유소기의 유생산력론(唯生産力論)
6. 문화대혁명
8. 실용개방 노선의 시대

초기 중국공산당의 대부들 — 진독수, 이대교, 구추백, 모택동의 사상적흐름

권 영 빈

서울대 동양사학과 동대학원졸업 현 중앙일보 출판주간, 역서로 「중국공산주의 운동사」「진독수평전」등

Ⅳ. 모(毛)의초기 중국 공산당 비판

구추백의 진·평노선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크레믈린에대한 구의 충성심을 높여주는 것이 되었다. 27년 4월의 5전대회에서 구의 지도노선은 확립되었으며 진은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했어야했고 구추백 장국도 이입상 이유한등이 정치국원자리에 앉게된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화 트적 틀속에 억지로 맞추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이 보고서는 농민종합의 원천한 행동의 자유를 잃어야하고 동촌의 혁명적 열정이 아무런 방해없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대담하면서도 열정적인 호소로 가득차 있다. <농민의 힘은 질풍 노도와 같은 것이라고 그는 외친다. 『그것은 급격하게 폭력화한다.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수없다. 농민들은 그들을 구속하는 모든 질곡을 타파하고 해방에로의 길을 서두를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부패한 관료와 마을의 유지, 간악한 향신등 모든 세력을 분쇄해 버릴것이다. ···수많은 농민들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기했다. 농촌의 민주 세력은 농촌의 봉건 세력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기했다. 봉건세력의 타파가 결국 민족혁명의 목표이다.』

이보고서의 핵심은 가난한농민만이 농촌혁명의 전위로서행동할수가 있다는 점이다. <혁명이란 잡치가 아니다. 책을쓴다거나 꽃을그리는것처럼 고상한일은 더욱아니다. 혁명이란 한계급의 편에서 다른계급의정치권력을 뺏았는 격렬한 행위인것이다. 농민혁명이란 본건 지수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농민의 반란이다.>

이시기의 모는 모든 이론적 사변과 전면으로 맞서면서공장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혁명의 격렬세력을 농민에주고자했다. 에드가 스노우와의 인터뷰 가운데서 모는 진독수(우파기회주의)를 비난했고 진은 <혁명에있어서 농민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고 도시에 그것의 가능성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의 진에대한 비난은 진독수가 자신의 논리에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콘민테른의 정책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현실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모의 보고서를 보다 정직하게 관찰한다면 그것은 진의 기회주의에 대한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모든 콘민테른전선에대한 앙쿨의 공격이었음을 알수있게 된다.

보고서에 나타나있는 문맥상으로는 모가 당내에서는 구추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구는 토지혁명이 부르조아민주혁명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고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하린 지도노선을따른 사람이었다. 더구나 모는 1927년8월 진 지도체제를 부너뜨리기 위하여 구와 세력규합을 한바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구가 농민혁명을 혁명의 <주요내용>(main content)으로 파악한데 비해 모는 농민이 혁명의 <주요세력>(main force)이라고 보는 커다란 차이점이있다.

모이전의 중국공산당의 사상적 대부들은 결국 진독수 장국도 구추백 이입상을 포함해서 모두가 철저히 도시화된 지식인이었다는 점에 비해서, 모의 사상적 배경은 당시의 현실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사회적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것인가를 깊철저로 파악했다는데에 차이점을 발견하게된다.

중국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서구 사상과 러시아 혁명을 모델로 삼아 이는 결국 중국 현실과의 괴리감을 빚어

Ⅱ. 진독수와 이대교의 정치활동

주요 특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의 기간동안 그들의 사상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았던 당시의 결말적 분위기와 대외적 사건들의 충격에 관심을 보여야할 것이다. 투사랍 모두 한가한 사세가아 아니었고 조국이 처한 상황에 깊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서구에서 찾으려고 마음 조리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급박한 정치상황에 대한 고려없이는 이들의 사상 발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1911년의 신해혁명은 1919년에 오면서 이미 명백한 실패로 판명되었다. 손문의 국민당은 그가 즐겨 중국민족을 비유해서 썼던 <흩어진 모래알> 처럼 분해되어 버렸다. 1919년 진은 『8년동안이나 걸려있던 『중화민국』이라는 잘못된 간판은이제는구식 악(樂)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구 열강의 변화의 측소판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는 아직도 역사과정을여전히 세계정신의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헤겔 우파의 입장에 머물러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상주의자였을 뿐이다.

이때교에 비해 진독수의 10월혁명에관한 반응은 철씬다르 렸다.

진독수의 「민주정치 실현의 기초」가 실린 「신청년」의 같은 호에는 그의 사상적 전환을 나타내는 첫번째 징후가 나타난다. 1920년12월경 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과학은 실패했고 류이의 개혁안은 오랜 세월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희생적인 작업을 요구한다. 게다가 전체적 구원의 희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진은 망설임없이 세계적드라마를 중국수 있는 구원의 멜로드라마쪽을 택하게 된다.

이때교또한 그의 「를질적 변화와 도덕적 변천」이라는 1919년2월 신조에 실린 글에서 정계 초대 서기장, 국공합작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콘민테른의 대표등과 미묘한 관계속에서 결국은 우파기회주의자로 몰린게되고 결국은 당에서 축출된다. 이후 그는 트로츠키파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극우 사상의 원점이었던 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되면서 중국공산사에서 이때교가 사상적 대부역을 맡게되고 진은 이단자의 대부역을맡게되어버렸다.

1920년~22년 동안 사회주의의 즉각적인 실험을 위해서 온갖 정열을 쏟았던 인물이 어떻게해서 순치스러운 부항자가 될수있었을까?

Ⅲ. 구추백·모택동의 지도노선

국공합작시절의 자료에 따르면, 구추백은 1927년의 처음 몇달동안 공산당내의 핵심적 반대파인물로 지목되어 있었다.

틀름 1923년서 27년에 걸친 중국공산주의 운동내부에서 벌어졌던 복잡미묘한 파당이나 개인적인 적대관계를 여기서 모두 재구성하기란불가능하다.

ECCI 제7차 총회가 끝난다음 반대파의 출현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는찾게된다. 진독수와 볼슈지의 지도노선은 <지역조직과 중앙위원회거들급 지도급 인사들에 반대파(구추백, 장국도) 의 등장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회개최를 연기시키고자 했다> 고 파셀미트는 1927년 4월의제 5차 당대회에서 밝히고있다. 맨틀리얼은 진독수를 공격할때 구추백의 발언을 지주 인용하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27년 8·7 긴급회의에서 진독수를지도부에서 끌어내리고 구추백을 부상시켰던 국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파간의 갈등은결국 볼슈지와 구추백간의 개인적 갈등에 그초점이 모여진다.

진독수의 중심한 주장와얼던 팸슬지의 「중국혁명의기본문제」라는 글에 대한 회답으로 쓰여진 「중국혁명의 논쟁문제」(27년 3월)라는 구추백의 논문은 부하린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스탈린 지도체제는 트롤츠키의 반대에 부딪치고있던 국공합작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트로츠키를 국우파로몰고 국좌파로 하여금 합작을 담당케 하려했다. 트로츠키는 대중을 부르조아지에 넘겨주기를 바랐고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중을 향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구가 평을 반박하는데 사용했던 것은 바로 이 공식에 따른 것이다. 평은 <민족 부르조아지>를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했고 국민당을 <매판관료와 봉건군벌주의자>등의 연합이라고 보았다. 구는 이에대해 격렬한 반대를 보였다. 구의 주장에 따른다면 민족부르조아지는 아직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혁명>에 참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부르조아지는 혁명을배반하였지만 국민당의 신우파(장개석)로 대표되는 그것의 정치세력은 매우 큰 것이다.

구추백은 콘민테른의 충실한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국민당은물론부터 탈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는 완강히 반대했다. 국민당은 농민, 쁘띠부르조아지, 프롤레타리아트 그리고 민족부르조아지의당이기때문에, 그리고 이들 계급모두가 아직도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포기한다는 사실은 곧 반동적인것이란다 "

구추백이 진독수·평슬지 논선을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논리의 핵심은, 진·평노선을·모스크바의 트로츠키와 동일시하는데 있었다. 이들의 논선이 트로츠키의 「영구혁명」 논리와 유사하다는데 있었다. 그렇다면 영구혁명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트로츠키의 주장에 따른다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적은 숫자이기는하지만, 자본주의가 입에 있어서 1927년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한 해가 된다. 모택동의 「호남농민운동고찰보고」가 1927년 3월 27일자의 「향도」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사상적 흐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수여했고 모택동 전략의 주류를 이루게되는 이보고서는 모가 농민출신이라는 배경때문에 나온것이라고 단순하게 볼수가 없다. 그는 공산당에 가입한 뒤 줄곧 그의 모든 정열을 노동조합에 바쳤다. 농민조직에 그의 정열을 쏟기로 작정한 다음 그는 외곽으로 이운동에 빠져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바로 1962년, 그의농민조합이 괄목할만한 성공을거둔기간동안의 자신의 체험을반영한 것이다. 한 젊은이의 정열에찬 작품인 이 보고서는 마르크시스트의 장식을 완전히 벗어던진 민족주의적 성향의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다.

에드가 스노우와의 대화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당시 모의 다른 저술인, 「중국사회 각계급의 분석」과 「우리의 일부」 등은 그의체험을 유사마르시스트적 틀속에 억지로 맞추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이 보고서는 농민종합의 원천한 행동의 자유를 잃어야하고 동촌의 혁명적 열정이 아무런 방해없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대담하면서도 열정적인 호소로 가득차 있다. <농민의 힘은 질풍 노도와 같은 것이라고 그는 외친다. 『그것은 급격하게 폭력화한다.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수없다. 농민들은 그들을 구속하는 모든 질곡을 타파하고 해방에로의 길을 서두를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부패한 관료와 마을의 유지, 간악한 향신등 모든 세력을 분쇄해 버릴것이다. ···수많은 농민들은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기했다. 농촌의 민주 세력은 농촌의 봉건 세력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기했다. 봉건세력의 타파가 결국 민족혁명의 목표이다.』

이보고서의 핵심은 가난한농민만이 농촌혁명의 전위로서행동할수가 있다는 점이다. <혁명이란 잡치가 아니다. 책을쓴다거나 꽃을그리는것처럼 고상한일은 더욱아니다. 혁명이란 한계급의 편에서 다른계급의정치권력을 뺏았는 격렬한 행위인것이다. 농민혁명이란 본건 지수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농민의 반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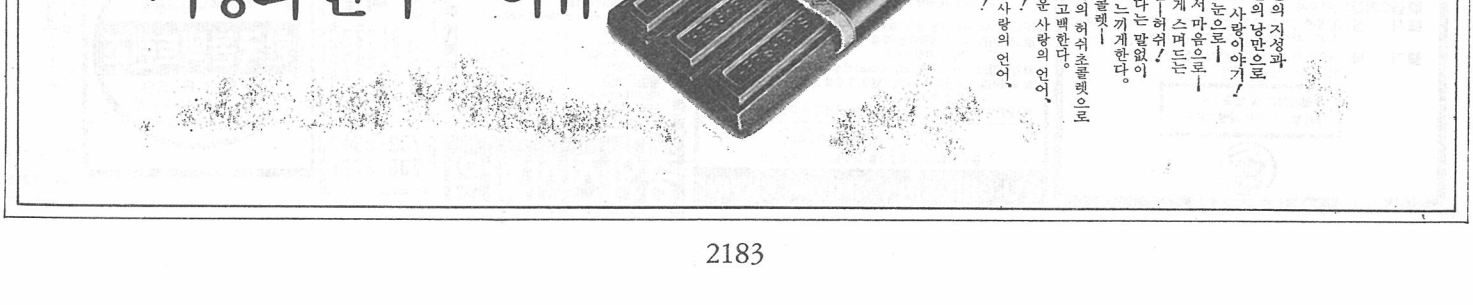
이시기의 모는 모든 이론적 사변과 전면으로 맞서면서공장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혁명의 격렬세력을 농민에주고자했다. 에드가 스노우와의 인터뷰 가운데서 모는 진독수(우파기회주의)를 비난했고 진은 <혁명에있어서 농민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고 도시에 그것의 가능성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의 진에대한 비난은 진독수가 자신의 논리에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콘민테른의 정책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현실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모의 보고서를 보다 정직하게 관찰한다면 그것은 진의 기회주의에 대한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모든 콘민테른전선에대한 앙쿨의 공격이었음을 알수있게 된다.

보고서에 나타나있는 문맥상으로는 모가 당내에서는 구추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구는 토지혁명이 부르조아민주혁명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고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하린 지도노선을따른 사람이었다. 더구나 모는 1927년8월 진 지도체제를 부너뜨리기 위하여 구와 세력규합을 한바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구가 농민혁명을 혁명의 <주요내용>(main content)으로 파악한데 비해 모는 농민이 혁명의 <주요세력>(main force)이라고 보는 커다란 차이점이있다.

모이전의 중국공산당의 사상적 대부들은 결국 진독수 장국도 구추백 이입상을 포함해서 모두가 철저히 도시화된 지식인이었다는 점에 비해서, 모의 사상적 배경은 당시의 현실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사회적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것인가를 깊철저로 파악했다는데에 차이점을 발견하게된다.



대학의 자유와 지식인의 실종

오 화 석
<서양·서반아·4>

예로부터 대학은 곧 자유의 상징이었다. 왜냐 하면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장 (場) 으로 진리는 학문탐구의 자유, 교육의 자유 하에서만이 얽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이 이러한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학으로서의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접근이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없는 대학은 전문 직업 훈련소는 될지언정 진정한 대학일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인류 최고의 가치인 진리추구를 위해 대학에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될는 너무도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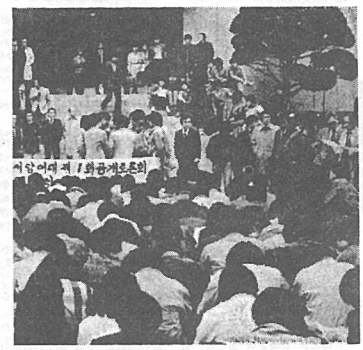
하지만 대학의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여타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부단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 『쟁취한 것』이다.

대학은 중세 길드의 한 산물이다. 학생 길드와 교수길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스스로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외부세력과 싸움을 계속했다. 상용되는 영어의 『타운(town)』과 『가운(gown)』은 시민세력과 대학인을 뜻하는 것으로 양자의 빈번한 싸움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이런 결과로 중세의 대학은 교회 왕권과 더불어 당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3대 세력 (sacerdotium imperium studium)을-이후었고 대학총장이 대학인의 사법권 (司法權) 까지 관장하는등 명실상부한 대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대학의 자유라는 개념과 영역 또한 변화가 따랐다. 그렇지만 적어도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선 계속 신장을 보여왔고 오늘날 구미 선진국의 대학들은 여하한 외부의 압력이나 권위에도 굴함이 없이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다. 일마전 영국의 대처 수상이 모교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려다 거부당한 사실이나 페이건대통령의 연설을 거부한 「스탠포드」 대학 당국의 결정등은 그들 나라의 대학들이 향유하는 자유의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만하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의 대학을 보면 그저 암담하기만 하다. 과거의 일들은 접어둔다고 해도 올해들어 우리의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은 차마 한심하기 짝이없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일제히 수세를 당하는가 하면 캠퍼스내 경찰 투입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혹은 체포당해 투옥기로 구속되었다. 입학·졸업식에선 선·후배간의 접촉을 막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고 문교부는 신명이라도 난듯 졸업이로 지시와 명령을 이어나간다.

『학원내 집회및 시위를 즉각 해산시키지 못할때 대학 관계자는 엄중 문책 당할것』이라는 공공연한 협박과 함께 『「문제권」 학생에겐 장학금이나 학식을 비난하는데 신물이 난 학생들은 또 다른 길은 우리들 대학인의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교수의 자세가 관심을 집중시킨다. 대학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대학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는 잠잠하기만 한다.



서양·어려 제 1 외공개강좌

대학 자율의 훼손은 진실 외면한 교수와 지식인의 소극적 자세에서 결과

교수가 지식인임을 자인할때 실추된 대학의 권위는 다시 피어올라

한 술 더떠 외부의 세력에 순응, 협조하는 분위기 또한 만연되어 있다. 경찰이 교내 수색을 감행해도 그 많은 대학 중 어느 하나 거부하는 대학이 없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학의 자유를 수호해야할 총·학장들이 오히려 문교부의 수발리로 오늘날 우리의 교수들이 스스로 지식인임을 포기함에서 비롯한다.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방다(J. Benda)의 저서 「지식인의 배반」 에서널리사용되고 「드레퓌스」 사건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지식인의정의는 『세속적 권력에 대항하여 진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사람』 이다.

소련의 반체제 시인 (詩人) 「만델리 슈탐」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지식인의 역사적 운명은 늘 가시밭길이다. 그것은 권력의 발이기도 하지만 지식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무리가 왕왕 그 이름을 머리에 이고 다니기 때문이다. 졸업증서를 가졌다거나 소설과 시를 쓴다고 해서, 또는 엘리트 관료라고 해서 바로 지식인 일수는 없다. 언제나 지식인이 함축하는 나태엔 진정한 자유와 진리는 사라진다.』 —어록 <회상>

곧 언제 어디서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유무가 지식인의 진부 (眞否)를 거듭 한다는 말이다. 「사르트르」 도 한 이에 동의한다.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자 (졸)는 사이비 지식인이다』 —<지식인을 위한 변명>.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자는 참된 지식인이 아니다. 지식인은 언제라도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무래도 이 땅의 대표적인 지식인은 역시 대학 교수다. 교수가 지식인이길 포기할 때 지식인은 실종된다. 지식인이 실종하면 진리의 싹은 자라지 못한다. 싹은 커녕 움도 크지 못한다. 교수는 지식인이길 고수해야 한다. 「지식 상인」 이란 오명을 벗어 버리고 지식인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해야 한다.

단지 지식인로써만이 아니라 지식인다운 인격으로 학생과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용기있는 졸업으로 메마른 이 땅을 촉촉히 적시어 진리의 싹을 키워내야 한다. 대학교수가 그런 태도를 견지할때 비로소 실추된 권위와 대학의 자유는 회복될수 있다.

「자유란 그것을 누릴만한 자격과 역량이 있는 자(졸)에게만 돌아간다」란 말은 진리다. 교수가 지식인임을 거부할 때 대학의 자유는 결코 회득될 수 없다. 우리의 교수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지식인로써 새롭게 환생하여야만 한다. 지식인의 부활을 기대하며 다시금 「인텔리 슈탐」의 어록을 되새긴다.

『지식인이 함축하는 시대엔 진정한 자유와 진리는 사라진다.』

실종된 "지식인"을 되찾아

다시 개강을 하고 졸업거리는 캠퍼스를 맞이했다.

겨우내 삭막하게 언 캠퍼스를 움츠리며 드나들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졸업」이는 캠퍼스.

분명 지긋지긋하던 눈도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리고캠퍼스는 그 주인들로 넘치고있다. 그러나 내 바라던것이이런것이었던가. 막연하게 기다렸기때문인지 푸념이 말할 수는없지만 그래도 피상적인 졸업거리은 진정으로 우리의 졸업일이 아닌듯 기다리던 사람을 때없이 주저앉게 만든다. 지난번 개강때도 그랬고 또 지난번 개강때도 그랬다.

항상 어떤것을 바란다면 바라는 사람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늘 기다림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있는것인가보다. 하지만 수동적인 기다림은 자신과 자신이 누려야할 것이 타인에 의해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을 방관하게, 끝끝하지만 타인속으로 흡수되게만 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안될일. 주어진 상황이, 밖에서 가해지는 변질에의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응하는 우리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위해 소쩍새는 밤부터 그렇게 울었나보다」란을 뇌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졸업거림을 굳이 「문화」라는 도식화된 말에 적응시킨다면 얘기가 더 빠르게 진전될지도 모르겠다.

「정치와 문화는 그분야에 있어 무관한 듯하지만 사실 그두 분야만큼 밀접한것도 드물다는 것은 잘알고있는 사실이다.

결국 그것은 「문화정책」이라는 단어로 묶여져 그것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는데, 「문화정책」에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주의에의그것이있고 또한 나라안에서 지배계층가 피지배층을 자신의 지배하에 잡 순응하게함에의 「문화정책」이 있다. 이는 어느 부문의 정책보다 고도의 정책을 필요로하며 그래서 성공하면 가장 깊숙이 오래동안 스며들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기도 한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가지 정책에 모두 해당하는 이른바 「제3세계」 이고 그 굴어진 모순은 함부로 언급하기도 어려울만큼 심화된 것이다.

자신이 사는 나라, 속한 지역, 계층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게하고 타문화에 동화되게하려는 문화적 빈곤을 파생시키는 정책은 비록 태어날 때부터 강요된 것이라 하더라도 핏속에흐르는 본질은 속일수없는 것인지라 그래도 제것을 찾기에의 발버둥은 피눈물 나는 것이기까지 하다. 본래 문화라는 말의 어원이 푸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위의 상황의 발생을 이해 (?) 하게 해주기는 한다.

즉「Culture」에서 비롯한「생활양식, 행동양식에 바탕하여 역사적으로 쌓이고 겹쳐진 민중경험의 총체」라는 것과 한자의 「文化」에서비롯한 「말의 기술에 의한 곧 정보조작에 의해 민중을 지배교화」하는 것 두가지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 뜻은 어느사회 시대를 막론하고 민중과 지배층사이에 끊임없는 대결을 이어왔다.

그러나 어느 어원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이전에 문화라는것이 사회의 억압에 시달리면서도 생활속의 노동에서 비롯된 민중, 그들자체이기에 밖에서 제공해준 체질에 맞지않는 사상과 정서의 그릇은 곧 깨지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중문화」 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가면서 일어버린 문화를 되찾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명 「민중문화」 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개념을 정립시키려한 것은 소수의 전문문화인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민중이 아니기에 「민중문화」는 「민중지향의 문화」 이상이 되지못했고 드디어 민중들은 스스로의 문화를 정립시키고자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것을 민중문화속의 연희집단에서는「두레패」라고 한다. 연희집단은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는데 뜬패는 대도시중심의 전문연희집단을, 또 뜬두레패는 이 양자의 중간에서는 낯설은 일굴들이 많이 눈에 띈다. 세식구를 맞은 반가움이 있다. 반면에 보이던 낯익은 일굴들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졸업」 이라는 이름하에 학교를 떠난 사람만 있지 않음은 확실하다. 서운함에 본노까지 인다. 결국 하늘아래 하루살이가 더 늘어났다.

본안한 정권은 문화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대(對)학원강경책도 이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살아있다 말하자」라고 누가 말했던가.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할때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캠퍼스내의 두레패가 될때 하루살이가 될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암박할 수 없는 진정한 생(生)으로의 「우리가 살아있다」 고 외칠수 있으리라.

<동양·일어·3>

대항 헤게모니로서의 두레패의 물결은 더이상 막을수 없는 흐름

송 지 현
<문화부장>

있다. 그러나 캠퍼스도 한 「현장」으로 보았을때 진정한 두레패는 어디있는가. 가장 엘리트의식 하면서도 지배층의 주어진 문화에 안주했던 것이 학원의 문화,캠퍼스의 중속도는 아니었던가. 두레패는 우리 자신이다. (여기서 학생과 교수는 다름이 아닐게다) 우리도 우리가 두레패가 되어 우리 문화를 찾아야할 때가 되었다.

넘치는 캠퍼스의 주인들중에

기자의 눈

(3월3일(월)일 학식장, 『이상으로 입학식을마치겠읍니다』라는스피커의소리와 동시에 도서관쪽으로부터 60여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행진을 하며 입학식장 주위를 돌며 시위를 시작했다.

신입생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는 가운데 시위는 계속되고 학교직원들이 뛰어와 제지(制止)를 하기시작 했다.

이때에는 이미 많은 사복경찰들이 교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학교직원들과 섞여 격렬하게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 와중(渦中) 몇명의 사람들이 대열후반에 있던 임용철군을 덮쳤고 그때 임용철군이 취두른각목에 이종현 학생과장이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학생시위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던 관계직원을문책하겠다」라는 엄마전 대(對)학원 지침하달이후 시위시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마찰이 불가피 하게끔 되어있다. 이렇듯 날로 격렬해지는 새우싸움에 대해 한 관계직원은 『우리도 학생시위를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 어쩔수 없이 막는 척하다가 뒤로 빠지는거죠』 라며 씁쓸히 웃는다.

"엄마, 무서워요 빨리가요."

그날의 시위를 보고 본보 (本報) 에 투고 (投稿) 를 한 이태리어과 신입생 모군은 『왜, 이러한 상황들이 대학이라는 진실의 탐구장에서 벌어져야만 할까? 내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의 권위가, 학생들이 아니라 대학울타리 밖에서 한결 한결 실추시켜온게 분명하다 외부의 사람들이 교수님들의책상을 쾅, 쾅, 칠때마다 한단계, 한단계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라고 현실을 개탄하며 투고한 글의 말미에서는 『×××, 대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열심히보며 지내버릴까? 아니면 산골에 가서 흙이나 파먹으며 살아갈까?』 라며 자조 (自嘲)적인 말로 끝을맺고있다.

모군의 말대로 「진실의 탐구장」인 대학을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값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할 공동체 (共同體) 인 학생, 교수, 교직원들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분열을조장, 획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일이다.

이런식의 현 위정자 (爲政者)들의 행동에 그 진의 (眞意) 를 파악하지못하고 그저 투드리는 장단에 맞춰 춤을추는 사람은 적어도 이 대학안에서는 없어야 할것이다.

『엄마 메모하나 봐. 무서워 빨리 집으로 가요』 라고 하며 부모의 손을 끌며 총총히 사라지던 한 신입 여학생의 뒷모습에, 왜 캠퍼스가 이렇게 무서운 곳으로 되어야만 했을까하는 씁쓰레한 기분이든다.

<홍창형기자>

알 림

「외대만평」「크로니클」 공모

본보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외대학보 고정란 7인의 가족 「크로니클」과 6면의시사만평 「외대만평」을 공모합니다. 창간과 때를 같이하여 제작될 창간특집호에 기념적인 독자 참여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번 「크로니클」「외대만평」 모집에 독자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바랍니다.

독자여러분이 곧 외대학보 기자가 되어 참실한 시각과 날카로운 기지로 필봉을 마음껏 휘둘러 보십시오.

- 마감 : 4월3일 목요일
- 제출처 : 서울 캠퍼스 학생회관 309호
  용인 〃 사회과학관 402호

「아고라」 원고모집

말을 제대로 합시다. 진실이 왜곡(歪曲)된 이 어두운 동토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말제대로 하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본보에서는 금년부터 「말 제대로 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본교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장(場) 「아고라」를 복고합니다. 본보가 선정한 주제하에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격주로 싣는 본기획에 살아있는 독자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436호 주제 : 「대학인의 양심」에 대하여

- 원고매수 : 8~9매
- 마감일자 : 3월15일 토요일
- 제출장소 : 서울 캠퍼스 학생회관 309호
  용인 〃 4장의동 402호

외 대 학 보

창사2주년기념 아이디어 공모

청보식품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청보! 소비자에 의한 청보!
참신한 경영의지와 의욕적인 자세로
창사 2주년을 맞이한 청보식품이 이제 더 큰 포부를 갖고 미래를 펼치기 위해 여러분의 고귀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 분야 및 내용

분 야	내 용
생 산 (스낵, 라면)	① 유사 신제품 개발 및 기존생산 시설활용에 관한사항 ② 질적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에 대한 Know-How
판 매 (유통)	① 당사 판매유통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제품 ② 유통구조 개선및 유통활성화 방안

■ 응모요령: 각항 공히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로 작성
■ 접 수 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75-31(기남빌딩14층) (주) 청보식품 사업개발본부 Tel) 553-2311
■ 접수기간: 연중수시
■ 시 상: ① 우수상 1명: 상금 1,000만원과 사원특채의 기회부여 ② 가 작 3명: 각 300만원과 사원특채의 기회부여
■ 기 타: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음. 원고상단에 연락처 명기

●심사기간 및 발표 : 연2회 (6月말, 12月말) 개별서면통보

청보식품

Oxford English Study Group 개강안내

친애하는 대학생 여러분!
시내 20개 대학 연합 Oxford English Study Group은 영어를 완전히 Master하는 Study Group이오니, "외국어 학습의 4대 필수요건"을 확인하고 접수하는것이 현명하십니다.
※ 외국어 학습의 4대 필수요건 : • 완벽한교재 • 완벽한 강사진 • 영어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강의방법 • 등록된 공신력있는 기관이주관

■ 강의내용 : • English Mind Training • Hearing • 문법 • Idiom • Slang • TOEFL • Free Talking
■ 교 재 : Oxford대학발행 American Streamline의 Text Book 4권, 에술·복습 Self Study용 Hearing교재 18개(미국인교수 50명이 현지녹음)
■ 강의진행방법 : 120분 강의를 40분씩 3등분하여 아래와같이 강의함.
■ 제1교시 40분 : English Mind Training및 Hearing, 발음교정
■ 제2교시 40분 : Text Book에 의거 해설장의(문법, Idiom, Slang TOEFL
■ 제3교시 40분 : Text Book을 중심으로 Free Talking
■ 수강요일및시간 : 6개반중에서 임의선정하여 전리한시간에수강

반편성 및 수강요일		요일별 강의시간		
월수반 · 화수반	월	11시~13시	토	11시~13시
목토반 · 금토반	〃	17시~19시		15시~17시
월토반 · 화토반	금	19시~21시		17시~19시

※ 주·토요일 강의는 외국인 강사가 120분간 토론 형식의 Free Talking진행

■ Orientation : 3월 16일 일요일
■ 교육기간 : 4개월정규과정 (수료시 Level Test후 불합격자는 2년간 책임지도.)
■ 강의장소 : Oxford Study Room (신설동전철역에서 3분거리)
■ 교육비용 : 제반교육자료및 2년간 수강료 포함하여 2만원씩 6회 분납, 총 12만원
■ 접수기간 : 3月 13日까지 각반 30명 선착순 전화접수및 래방

직통 전화 745-6561·6562
종로5가기독교파방송국 B/D 410호 학생관리처

OXFORD EDUCATION CENTER

会計学 実力講座
⊙ 大学実力보강!! 공인회계사·세무사 감정사·공무원시험
개강 毎月初 · 우수강사진 · 합격률 최고!!
부기 1·2·3급 · 고급회계 · 회계이론 · 稅法
李東根 · 李祥模 · 成完濟 · 金東勳 공인회계사 力讚!!
종로 3가 네거리(피카디리 극장옆) 765-2502·3
창립36년 전통 정평의 실력강의!! 대한경리학원

컴퓨터
개강 : 매월 첫째 월요일 (통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함)
17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 프로그래밍 전문과정 (1년)
■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 키펀치 오퍼레이터 과정
■ 마이컴 (BASIC, CP/M) 과정
■ 위탁교육과정
※ 특설반 : 새벽반, 기시대비반, PASCAL반

본 원 이대앞 전철역앞(중앙빌딩) 716-7291~3	종 로 단성사앞 비원옆(중앙빌딩) 745-0461~2
영등포 영등포역앞 여의도쪽 100m(한전앞) 678-3785, 0750	영 동 영 동 사거리주택은행앞 546-4255~6
부 산 부신역앞(중앙빌딩) 43-0444~6	

컴퓨터 교육의 명문 정상을 향한
중앙전산학원

軍·행정병 모집
육·해군 참모총장 위촉서
자격 : 사국 17~26세 고등학교졸업(예정포함)자 (유학·휴학자 포함)
특전 : 수업료 면제, 각군진학특혜 거주지 근무, 제대후 진학 및 취업 우대
채펜 글씨 교정 인성 지예 차트 한원
속기·속사자격증 취득자 개인지도로 단기간 속성·주경야독 가능 관청선 공무원 취업자 부수입 제과 제빵
732-5346
735-3771

발파낫
연속착용 하이파II 베스콘렌즈
한국소프트렌즈
734-9552
종로2가12(동일빌딩3층)
부설 : 의안제작

발파낫
연속착용 하이파II 베스콘렌즈
한국콘택트렌즈
733-6858
종로2가75-6 (태극당옆)
부설 : 의안제작

뉴스안경
안과 처방 조제
△학생 △고급 실용품 유명화사제품 구비
○○이대입구 ○신촌입구 전 신촌 전 파리
712—1255
714—1255

과학시대의 인간

과학은 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박 성 래 〈본교 사학과·과학사〉 교수

1

1986년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입시의 논술고사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이과지망생에게 비슷한 문제를 제시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부작용에 대한 것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문제로 제시된것이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 수험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비슷한내용의 답안을 써넣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역기능 또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과학문명을 날카롭게(?) 비판한것이다.

오늘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가치도 없는일이다. 또 현재의 세계가 문제 투성이라는 데에도 무슨 다른 말이있을리 없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현대사회가 안고있는 갖가지 문제들—예를 들면 핵전쟁의 위협이나공해, 인구 증가와 빈곤,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의 소외등등—을 들고 그원인이 지나친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곰곰히 따지고 보면 오늘의 문제가 직접 과학기술의 발달때문이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원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문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발달시켜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원래 인간을 위해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기술이 이제는 거꾸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기에 이르게 되었던것인가?

비록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과학기술의 문제는 범세계적인 것이지만, 이문제의 발단은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찾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여주는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주로 서양사에서 지난 수 백년동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다음 동양에까지고 세계에 번졌다. 지금은 과학문명이 세계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것은 동양의 역사를 훑어 보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사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2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 과학이 처음 시작된 것은 보통 고대 그리스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리스 이전에도 과학이 없지는 않았지만 보다 분명한 자연현상의 설명체계로서의 자연과학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스 때부터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시대의 고대과학은 「과학」으로 부르기 보다는 보통 「철학」으로 불려서 종을 만큼 지금의 과학과는 질적(質的)인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자연현상을 아주 합리적(合理的)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과학이긴 했지만, 현대과학과 같은 엄밀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지는못했다. 고대과학은 차라리 과학이라기보다는 자연에 관한 철학이라 부르는편이 좋을 정도였다.

물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대표적인 과학자이기도 했던 것은 이런 과학의 성격때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케아 윤리학>(Nicomachean Ethics)에서 인간이 가지고있는 최고의 능력을 이성(理性)이라 보고, 따라서 인간의 최상의 행위는 사색(思索) 또는 이론적 연구라 주장했다. 그는 이런 연구의 범위에 수학과 형이상학 그리고 자연철학을 포함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이상학은「제1철학」이요, 자연과학은 「제2철학」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의 사다리>라는 위계적(位階的)관계 속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른 생명체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게 되며,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신(神)과 통하게해주는 부분이라 보았다.

플라톤은 여러 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른 자연과학을 갖고 있었다.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훨씬 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도 감각세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관찰과 경험의 중요함을 말한데 비해 플라톤은 절대적인 관념의 세계를 말하며 경험과 감각의 세계를 무시했다. 자연에는 어떤 설계가 내재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고, 그것이 곧 자연의 이데아(Idea)세계이다. 인간의 이성만이 이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는 수학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플라톤이 기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기하학이야말로 절대적 이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같은 것이라 믿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불·공기·물·흙등 당시의 4원소가 각각 정다면체로 되어있다고 생각했다. 불은 정4면체, 공기는 정8면체, 물은 정20면체, 흙은 정6면체라는 것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볼수 있는 이성(理性)의 해방은 그들에 앞서 이미 탈레스등에 의해 시작된 운동이었다. 그것은 자연을 초자연적 힘의 결과로 설명하지않고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의 발전을 뜻한다. 즉 제는「비의 신」이 내려 주고, 바람은 바람의 신이 불게한다는 식의 초자연적 설명으로부터 모든 자연현상을 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의 과학은 미신(迷信)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며, 장신(巫神)의 지배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대과학은 이러뜻에서는 상당히 인간중심적이고 또 인간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대의 휴머니즘(humanism)이었다해도 좋을 것같다.

3

로마를 거쳐 중세로 바뀌는 동안 서양의 지적(知的)전통은 크게 달라짐하여 기독교 시대가 되었다. 고대사회의 대표적 지성인이 철학자였더면 중세의 대표적 지성은 신학자(神學者)이며 교부(敎父)였다.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의 철학은 이제 기독교 신학의 보조장치로 전락했고, 이와 더불어 인간의 이성(理性)은 믿음(信仰)에 종속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5세기의 대표적 신학자 오거스틴의 말처럼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보다 신의 권능이 앞서야한다』 중세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된 지식은 성서에 쓰여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이성은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할 뿐이라 여겨졌다. 궁극적 진리는 신의 계시로서 나타난 것이며,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진리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 이성이 발견해 낸 과학적 지식이란 성서의 기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진실하다.

14세기의 신학자이며 과학자인 니콜·오렘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가 자전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해석이 더 그럴듯하다고 질론을 내렸다.

지구의 공전(公転)까지는 생각지 않았지만 지구의 자전(自転)을 믿게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서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성서의 뜻을 해석하고 있었다. 오렘은 이와같은 신의 계시에따라 지구의 자전 가능성을 거부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의 이성(理性)이 내리는 판단보다는 성서와 기록이 더 진리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렘이 활약하기 몇 세기 전부터 이미 유럽은 크게 변천해가고 있었다. 상업의 번성과 함께 도시가 발달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나 새로운 세력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다. 도시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여러 새속적인 직업을 발달(発達)시켜주었고도그것은모두가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었다. 새로운 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요청이 높아갔다.

12세기 이탈리아에서 이미 대학과 같은 기관이 교회와는 별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를 대학은 신학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학문분야—철학·법학·의학등—를 크게 발전시켰고, 때마침 십자군 전쟁의 종말과 함께 고대의 학문이 아라비아로부터 유럽에 흘러들고 있었다.

역사가 부록하르트가 지적했듯이 중세의 봉건사회가 도시사회로 바뀌면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個人)의 발견이었다. 봉건사회에서는 인간이란 스스로를 종족, 당파, 가족등등 어느 조직의 구성원으로써만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은 독립된 정신적 개체(個體)로서 의식하기 시작한것이다. 그것은 개성(個性)의 발견을 뜻한다.

봉건시대에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문학·예술을 포함한 온갖 다양한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겨 인정을 받으려 애쓰게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크게 일어난 고전(古典)에의 관심, 문학·예술에의 열정, 그리고 인간적가치의 회복을 위한 지성인들의 등장을 역사에서는 휴머니즘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휴머니스트로 손꼽히는 페트랄카의 말을 들어 보자—『당신은 날더러 중년기라고도 하고, 또는 역사가, 철학자, 시인, 신학자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쪽에도 마치지못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글쎄요, 결코 학문에서 손을 떼지 않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이성(理性)과 신앙, 철학과 종교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반드시 어느 한가지주장에 집착한것이아니었다.

이렇게 깨어난 서구의 지성(知性)은 17세기 이후 특히 18세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으니 그것은 곧 계몽주의(啓蒙主義)운동이었다. 아니이것 역시 「주의」(主義)라 부르기 보다는 그저 계몽사조(啓蒙思潮)라부르는편이 옳을지 모른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전통을 이어받은 계몽사조는 무지(無知)와 미신으로부터의 인간 이성의 해방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전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민족국가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에 계몽사상가들은 사해동포 (四海同胞)적인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통한다. 그러나 전의 휴머니즘이 근대과학 발달 이전에 나타난것과는 달리 계몽사조는 근대과학의 결과에 발맞춰 일어났다는 차이가 있다.

4

17세기 전후에 일어난 근대과학은 어느 의미에서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아들이며, 계몽사조의 아버지였다. 보통 근대과학은 폴란드의 코페르니루스가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하면서 급속도로 발달해 온 것으로 설명된다. 소위 <과학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코페르니루스가 르네상스 이탈리아에 유학하여 휴머니즘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휴머니스트로서 고대그리스의 학문에 관심을 갖고 고대의 지동설을 부활시켰다. 그는 또 휴머니스트답게 플라톤의 이성(理性)과 중세의 기독교를 알맞게 조화시키려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 보다 더 합리적인 주장이면서 또한 동시에 신의 권능을 보다 드높일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때문이었다.

코페르니루스의 이와같은 전통은 그후 갈릴레오와 케플러, 그리고 뉴톤까지도 계승되었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으면서 동시에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8세기의 대표적 지성 볼테르에 이르면 이런 균형은 완전히 파괴된다. 뉴톤의 영향을 크게 받은 볼테르는 중세를 기독교와 미신이 지배하던 <암흑시대>로 규정하고 근대과학이 다시 찾아낸 인간이성의 승리를 마음껏 구가했다. 계몽사상의 기수였던 볼테르와 그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이성의 시대>로 이름붙인 것은 이때문이다.

합리주의 (合理主義)가 그 후의 세계사를 주름잡기 시작했다. 고대그리스에도 합리주의는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합리주의가 관념적이고 연역적 (演繹的) 이었던데 반하여 과학혁명 이후의 합리주의는 경험적이고 귀납적 (歸納的) 이었다. 그리스가 낳은 합리주의의 대표적 산물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었다면 근대과학의 대표적 산물은 실험과학이었다. 바로 이 근대과학의 특징은 곧 위대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휴머니즘이 부활한고대의 합리주의가 규범적 (規範的·normative) 가치의 세계에 집착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근대과학은 가치의 문제와는 무관한(value-free) 경험적이면서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했다. 과학은 절대적 진리를 밝혀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17세기 이후 과학은 급속한 발달을 거듭하면서 서구문화의 주도적 힘이 되었고 20세기에는 드디어 세계를이끌게되어 버렸다. 과학의발달은 자연현상에대한 인간의예측과통제를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과학은 자연과학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19세기이래 수많은 기술발달이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서도 알수가 있다. 이제 과학과 기술은 떨어질 동반자로 여겨지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과학 지식이란 도구적(道具的)인 것이라고도 할만하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가치의 세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못한채그 주변의 환경만을 급속도로 바꿔주는 셈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과 갈등에 대해 과학기술은 아무런 지혜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생활을 좌우하는 주변상황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급격히 바뀌어 왔다. 최근 화제가 된 인공수정아(人工受精兒)의 호적 처리문제도그 간단한 예가 된다. 의학의 발달로 이제 인공수정아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아직이런 경우에 대한 법률적—준비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5

이렇게 살펴 볼 때 과학기술의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결국 서양의 휴머니즘 부활에 있다는 생각으로 귀착된다. 원래 근대과학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일부 뿌리를 두고 자라났다. 다만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해 가면서 그 근본을 저버렸을 따름이다. 특히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 전문화—세분화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면서 과학자—기술자는 자기의 하는 일이 어떻게전체와 연결되는지를 판단할 능력을 잃어갔다.

과학기술을 주조로 한 현대의 특징은 모든 인간을 도구적 부품으로 만들어 놓은 데에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인류 역사의주도적 역할도 이미 인간의 손을 벗어나 버렸다. 인간이 과학기술을사용한다기 보다 오히려 과학기술이 그나름의 논리에 따라 인간을 부리고 있는 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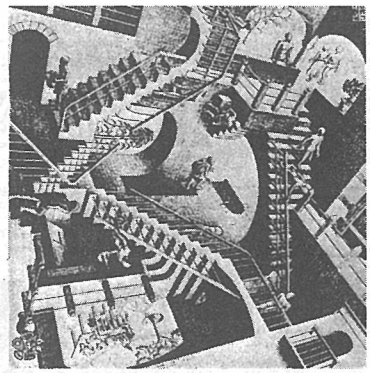
이를 극복하기 위한 휴머니즘의 부활이란 말은 쉽지만 극히 어려운 과업이 아님 수 없다. 비록 근대과학이 휴머니즘에 뿌리를 두고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뿌리를 잃어버린 현대과학은 다시 휴머니즘에 접붙치기란 쉬울수가 없다. 실제로 부분적이고 객관적이고 도구적 지식의 추구수단이 되어버린 현대의 과학을 전체적이고 주관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휴머니즘과 맺어주려는 것이 무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히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휴머니즘의 부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동양적 자연관이 갖고 있던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던 태도도 역시 되살려갈 필요가 있을 것같다.

그런 뜻에서 과학의 합리성을 너무 일방적으로 예찬하는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는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대과학의 합리성(合理性)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지식이란 관점에서만 강조된 것일 뿐, 그 목적의 윤리성 (倫理性) 에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뜻에서 우리는 「합리성」이란 논리적인 합리성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합리성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휴머니즘과 동양적 자연관의 부활은 바로 윤리적 합리성의 회복과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지적 풍토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세계에 걸친 교육의 방향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랄 정도로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딘다고 그저 팔장만 끼고 서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M·C에서의 작품. 상대성 2차원의 그림속에서 3차원적인 왜곡된 공간을 표시한 에서는 기하학의 화가이다.

<사진:사이언스지에서>

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은 모든 인간을 「도구적 부품」으로 만들어

여러가지 문제해결을 과학에만 의존한 인간의 책임

현대 사회의 과학에 의한 위기는 동양적 자연관과 휴머니즘의 부활로 극복될수있어

한번 판매한 제품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DAEWOO

음악은 교양필수!

노동절특집— 한국 노동자들의 왜곡된 문화현실에 관한소론

계급의식의 공유가 창조적 노동문화형성

김 경 은
<서양·포어과·3>

Ⅰ.

흔히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라기 보다는 복수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과 사회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은 사회에 의해 규정당하고 따라서 개개의 인간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회는 인간이란 개념을 역사적으로 복수의 의미로써 일반화시켜 놓았다. 사회는 인간자체이며 동시에 사회의 주체는 복수의 인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자신의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모여 살게된 인간은 사회라는 단위로 통합되면서 인간의 개념을 재창조하였다.

사회를 인간의 실현을 위한 전(全)과정을 관철하여 나타나는 인간집단이라는 공통적 현상이라할 때 인간의 역사는 발전의 과정이고 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반=생산력을 향상시켜 가지만 일단의 생산력은 인간관계를 규정하기도 한다. 일정단계의 생산력에 의해 제약되는 인간관계는 그 단계의 생산양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해서 역사적 의미의 사회에 생산양식이라는 틀이 짜여지면 인간은 그 한계내에서 자신의 삶을 일정한 모습으로 구축해 나간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인 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지워주는 상호작용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 모습은 사회에 의해 크게 몇 개의 단위로 분류되면서 각각의 단위에 그 사회내에서 정하는 모습을 가지게 한다.

사회는 생산력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관계에 의해 맞이하는, 각 단계의 생산양식에 따라 발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은 과정으로써의 사회에 변화과정으로 나타난다. 일정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단위집단은 각각에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은 또한 인간의 자기 실현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은 자신이 이룩한 사회에 의해 규정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과정상의 인간 모습에 대입시킬 경우 인간의 실현과정은 사회모순의 관철과정이며 개개의 인간은 사회모순의 부산물이다.

한편 인간이 역사적으로 복수의 형태로 존재해온 한 사회에 의해 규정당하는 모습은 개개의 인간이 집단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창조를 위해 주체적 의지를 가짐으로써 모순을 인식하게 되고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해소된다. 이러한과정이 역사적, 객관적으로 존재해온 진리라고 할때 인간이 집단을 이루며 나타나는 모습을 문화라고 명명함은 틀른 집단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 즉, 집단자체의과정이 문화이며 객관적 당위성을 부여받는 주체적 모습의 반영이 있을때 비로소 역사의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문화라고 할 때 그개념은 적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살아가면서 변화를 겪어가는 동적인 개념이 강하며 따라서 그 성질상 이론적인 자기 논리성의 추구라기 보다는 살아가는 모습속에서 배태되는 삶의 행동양식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했을 때는 사회내에 다양한 계층 혹은 계급중에서도 살아가는 형태가 직접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층의 생활양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살아가는 형태가 직접적인 모습을 띠고있다는 것은 생산력에의해 결정되는 사회의 모습속에서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일의 과정이 육체적으로 부대끼는 층을 말함이다. 더욱 구체성을 띠면 육체적 노동에 의해 살아가는 층을 일정 단계의 생산양식에 의한 사회모습에 의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즉,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문화형성집단을 살펴보고자하며 그 집단은 자본주의 성격상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직접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자본의 논리에 의한 집곡에 일반적모습보다도심화된 형태로묶어두고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당함로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권과 결탁한 상태에서 외국원조에 의해 본원적 축적을 이룬 몇안되는 재벌기업에의해 빚어지는 횡포는 중소기업의 사활을 좌우함으로 인해서 숫적으로는 한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면서도 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열세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압박을 느끼게 되며 그부담은 다시한번 굴절되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이렇듯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으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내의 노동자들은 그 환경조건의 열악성은 말할것도없고 물적기반에 의해 규정당하는 의식은 그들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은 저임금에 의한 노동자 생활의 저급한 수준에서의 동결이다. 한편에서 계속적으로 배태되는 농촌의 빈농화정책과 그에 따른 이농 현상은 대기하고 있는 임노동자를 증대시켰으며 그것은 저임금 유지정책을 가능하게하는 조건이다. 사실상 임노동자들의 출신을 따져보자면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부분이며 저임금에 따른 생활 수준의 낙후성으로 인해 그들이 누리는 생활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준차 없는 기본급은 현실적으로 진입및 야근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본에의 예속화를 항상 적으로 결과하게한다.

이렇게 마련되는 장시간 근무는 물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물적인 기반이 가능하려라도 달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불가능하게 한다. 보충되지 못하는 체 계속되는 노동에 의한 피로는 생활을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상호간 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더라도 현상적인 생활모습에 관한 교류에 그치고만다. 공장을 옮길 때에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고 자신들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공장생활이 체화되어 인간관계를 기계적·단절적 모습으로 만들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를 만들어 낸다.

노동현실은 생산과정내의 단순하고 무의미한 반복적 동작의 노동과정으로, 그들을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노동에의 매몰로 이끌어 사고작용과 분리시키며 그 과정에서 생긴 권태감은 설사 같은 계급이라는 일체감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고있다하더라도 상대편 노동자가 일을 게을리할 때는 우선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테중매체 장악과 그 이용에 따른 노동자계급의식의 저하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바 크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주말이라고 해서 별다름바 없이 일하는 그 시간에도 흘러나오는, 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형태및 삶의 추구에 대한 언급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 DJ에 의해 진행되는 음악프로에서「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달라」는 따위의 염서가 읽혀지고 그 염서보신인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과 젊은 층의 공장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주 고되고 본질마저 앗아가는 상실화 과정, 그 속에서비것이 말하여지는 모순된 언급에 대하여 비판의 의견마저 일어가고 있다. 자신의 물적 기반과는 무관한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대중매체에 의해 상류층의 생활에 대한 꿈을 주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생활과괴리된 의식의 세계는 관계 언론의 무비판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히 의복에서의 표현이다.

또한 공장주변의 소비적, 퇴폐적 업소의 무질서한 난립은 그들의 왜곡된 생활표현을 부채질한다. 일시적으로 무질제한 소비생활이 아니면 국도의 퇴폐된 생활형태는 몰 다 결코 건전한 생활방식일 수가 없다.

이런 생활은 결박한 생활의 연계속에서 노동자들을 개개인으로 고립시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에 고유한 문화창조를 저지한다. 문화라고 해봤자 고작 자신들과 소원한 계급의 허상을 모방한 뿐이어서 그들의 주체적 의지의 반영은 전혀 먼일 같기만하다. 그러한 관계문화의 답습은 자신의 위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수치로 여김으로써 계급의식 고양의 이전까지는 의식내에 자리한 열등감으로 인해 상대방 노동자및 노동자 계급전체를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도록 함것이다.

또한 그러한 열등감은 대화속에서도 과거지향적 대화로써 「옛날에 나는……」「어렸을 적에는 말이야……」하는 형태가 흔히 보여지며 상대방 이야기내용은 공통에서 무산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체워지지 못한 교육에 대한 욕구는 열등감으로 작용하기가 쉽상이며 이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의 관철인 관제기구에 편성됨으로써 자칭 계층상승욕구로 내재화되어 현실적으로 그것이 수렴될 수 없는 사회인 한 그 욕구는 파괴됨으로써 냉소적 인간을 만들 위험이 있다. 즉 사회는 광범위한 저변층의 인간을 사회로부터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시켜가고 있다.

고립분산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그들의 기반에 근거한 의식소유를 저해하며 따라서 자기실현에 역행하는 행동양식을 결과한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주체성을 결여하게끔 한다. 이렇듯 왜곡된 문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공통적 모임의 결합에 의한 계급의식의 공유를 인식하고 집단내 행동양식에 주체적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수동성을 탈피하고 창조적 산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길이다. 대단한 경지에의 도달이라는 개인주의적 문화와 세련된 기교의 획득이라는 기능위주의 문화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존재의식을 얼마나 자각하고 그에 따른 행동양식을 표출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또한 계급의식의 자각과정의 한 단계로 현 시점을설정할 때 그들의 의식과 그에따른 역량을 장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의 진정한 노동문화의 인식은 단순히 저급한 수준의 노동문화의 현상적 인식을 벗어나고 존재의 차이에서 오는 일체의 기득권적인 거만한 태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발전적으로 인식함이할 당할 것이다.

◇사진은 대우어패럴 노조 창립 1주년 기념행사때 지신밟기를 하는 장면이다.

존재의 자각과 그에따른 행동양식이 중요

노동계급의 대중 매체에의 무비판적 수용은 상류층 생활에의 환상과 실질생활에 괴리된 의식을 형성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공장내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가능한 한 직접적 주체적 고찰로 대변될 수 있다.

Ⅱ

봉건 사회에 외부로부터 이후진개발도상국의 공통적인 해결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즉 선진 자본국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후진국으로써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세계성을 띈 자본논리의 모순의 반영하에서 자신의 직접적 착취자인 공장의 자본가에 의해,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권과 결탁한 상태에서 외국원조에 의해 본원적 축적을 이룬 몇안되는 재벌기업에의해 빚어지는 횡포는 중소기업의 사활을 좌우함으로 인해서 숫적으로는 한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면서도 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열세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압박을 느끼게 되며 그부담은 다시한번 굴절되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이렇듯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으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내의 노동자들은 그 환경조건의 열악성은 말할것도없고 물적기반에 의해 규정당하는 의식은 그들의 근로 및 생활조건에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모순의 의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생산수단 소유계급에 의해 그들의 물적기반이 가능하게하는 권력기반 장악을 통해 지배이념으로써 계급규정을 더욱공고히하게한다. 즉 자신들의 자본논리관철을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윤리적·도덕적 합리화로 둔입없이 양국화된 계급을 재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더욱 착취되어 가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자본의 논리를 유지,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은 저임금에 의한 노동자 생활의 저급한 수준에서의 동결이다. 한편에서 계속적으로 배태되는 농촌의 빈농화정책과 그에 따른 이농 현상은 대기하고 있는 임노동자를 증대시켰으며 그것은 저임금 유지정책을 가능하게하는 조건이다. 사실상 임노동자들의 출신을 따져보자면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부분이며 저임금에 따른 생활 수준의 낙후성으로 인해 그들이 누리는 생활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준차 없는 기본급은 현실적으로 진입및 야근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본에의 예속화를 항상 적으로 결과하게한다.

이렇게 마련되는 장시간 근무는 물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물적인 기반이 가능하려라도 달리 자신의 시간을 가질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불가능하게한다. 보충되지 못하는 체 계속되는 노동에 의한 피로는 생활을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상호간 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더라도 현상적인 생활모습에 관한 교류에 그치고만다. 공장을 옮길 때에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고 자신들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공장생활이 체

현실성의 논리와 무한심에의 강요

독자컬럼
박 성 용
<서양·E·1>

요즘 우리들 주위에서는 종종 「현실성이 없다」 혹은 「자체 모순적 이다」 라는 말을 부담없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한다. 이 두마디의 말은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편의에 의해서 흔히 혼용되어 쓰인다.

이는 우리의 주위가 너무도 흔한 스럽고 주체적인 시각이 부재하는 사실에 있어서 반영 같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부류에게 그렇게 핍을 주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요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떨쳐버릴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이유로 늘 말해지는「관념적인 중오나 과격」으로 묶어버리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현실성이 없다」 라는 말을 살펴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다. 미래에는 가능한 일이 지금의 여건상으로 비적합하기 때문에 유보되는 것이 하나이고 미래건 현재건 간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이 또 다른 하나이다.

또 「자체 모순적이다」 라는 말은 그 말자체보다도 <모순> 이라는 말에서 우리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를느낀다. 모순이라는 말은 초나라 때의 고사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사용되어지는 모순이라는 개념은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보다 광부한 다의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만약 모순이라는 말이 박제화되어서 사용된다면 양분된흑백논리 속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선입견으로 편입되어, 방향을 갖는 운동의 논리에 일침을 가하는 진통적 권위로 '전화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현실성이란 말과 모순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도 천편일률적인 사유과정을 행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는가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있어서 표백되고 단순화되어진 복종의 지배논리는 주체적인 사고와 비평을 우리에게서 생소하게끔 하려하고 그 과정의 수행으로서 한일이 과격화된 언어와 태도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사실은 보다 자명해진다.

역사의 발전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력이란 미지에 대한 현실성의 자기부정과, 모순의 연속적 진행과정에서의 벽이 절곡으로 치닫고 결국 부정에의해 파괴되어지고야 마는 진리속에서 찾아지며 이 진행은 주체들의 부단한 자기검증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이 과정의 사고에있어서, 의식적 배제를 위한 절대성의 부각과 진리왜곡의 횡행을 본다. 그러나 이 현상이 어떤 해결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고다만 더 커다란 절곡으로 내달릴 따름이며, 이 상태의 극복에있어서는 확대되어진 폭력과 그 여파가 수반되어질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이 시대에 살수밖에 없고 어떤 해계모니를 찾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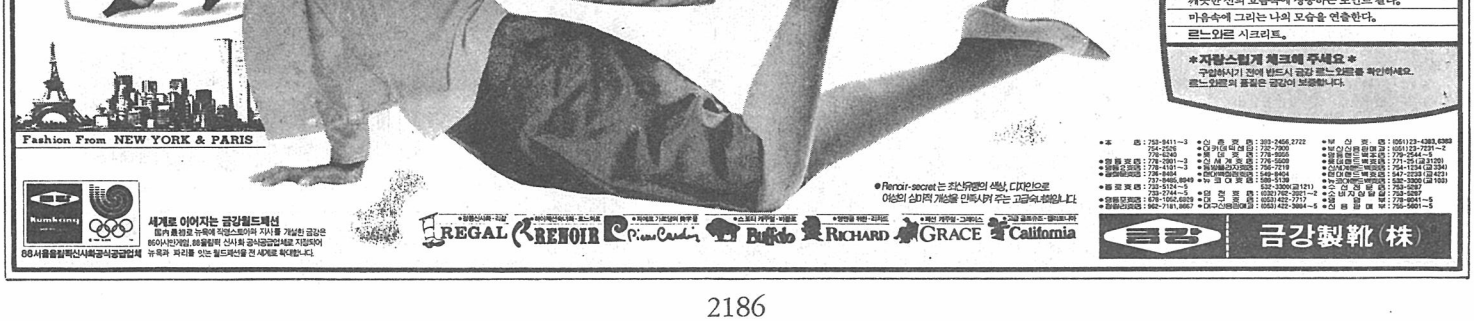
발전을 향한 현실의 자기부정이 있어야…

갈마다 비웃김만…

제 4 회
「외대학술상」논문 현상모집

최박한 외대토양을 일굴 학형(學兄)을 찾고 있읍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사표현마저 자유롭지 못한 긴박한 상황에 내적성숙만이 새 앞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본교의 학풍진작과 연구실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4회 「외대 학술상」상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뜻있는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 상: 본교 재학생
△모집부문: 자연과학분야 (80매 내외)
인문과학 〃 〃
사회과학 〃 〃
△주 제: 자유선택
△상금 및 심사위원: 추후공고
△접 수 처: 외대학보 학술부
(서울: 학생회관 309호)
(용인: 제4강의동 402호)
논문마감 5월31일(토)
※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캠퍼스의 자율명제 어디로 가나

<1> 현단계 상황의 이해

지금 대학은 그동안의 선전적·상징적 학원자율에서 가속화되고있는 당국의 대(對)학원 강경조치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파쇼국면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최근 시위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행구속등 학원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제재조치를 통한 일련의 구체화 과정들이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특히 지난달 4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전학련 연합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시위진압 양상은 앞으로의 국면변화에 있어서 「계기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적인 인식이 요구됨은 당위의 사실이다. 작금의 상황변화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앞으로 대학인의 위상(位像)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며 파쇼는 어떤 지향점을 추구할 것인가의 대명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84년 학원자율은 집권세력과 제 민주화운동세력간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한것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수직하향적 논리에 의한 「주어진 자율」이었기에 애초부터 자율이라는 명제에있어서 추상성을 띨수밖에없었다.

즉 학도호국단 체제의 존속, 의 복장한 백학속에서 싸움을 전개하는데 중추를담당해왔다.

이같은 학생및 제야운동세력의 폭발력인 투쟁양상은 곧 현재에 있어서 수단으로서 창출된 유화국면의 새로운 자기변신의 동인(動人)으로 작용하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내적근거를 토대로한 현재의 변화된 상황의 이해는 86년 상반기 정치권의 격관적인 정세파악을 전제로하고 있다. 이는 학원상황이 현정권의 기본틀인 틀에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6년 1학기는 정치권내에서 정권교체의 주도권을놓고 벌가 기간동안의 이번 시리즈는 학사규정 강화내용, 학생 지도방침, 총학생회의항방, 써클·학회등을 원론적 측면보다는 현화된 사건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려서 지난 학원자율의 반성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작금의 투드러진 모순구조에 대한 역량결집의 필요성과 그리고 학교당국과 학생들간의자체분열적인 모습으로 학내구조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율의지의 실현을 기대하면서 준비의 미흡함과여과과정의 결대부족속에 시리즈를시작한다.

<기획부>

교수 14명에게 학술 연구비 지급

본교 「학술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교수 14명을 선정하여 연구비 백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번 연구비 지원은 「학술관리위원회」가 재직연구, 집필논문등을 참고하여 선정한것으로 1972년부터 교수연구열을 고취시키고 다각적인 학문성과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일정인원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선정된 교수와 집필논문은 다음과 같다.

▲영어과=최종수교수:「영어시이해와 필수지식(교재개발)」
▲영어과=안우규부교수:「바이런의 극시, Manfred 연구」
▲불어과=오시근조교수:「말르로작품에 나타난 묘사(1)」
▲독어과=김원식부교수:「국어·독일어 비교연구」
▲중국어과=허세욱교수:「중공의 지하 저항시 연구」
▲중국어과=강계철조교수:「오강파희곡연구」
▲일본어과=이인영전임강사:「한·일 양국어의 태(Voice) 체계대조연구」
▲인도어과=김우조 조교수:「독립이전 힌디시에 나타난민족의식에 관한 연구」
▲법학과=이은영부교수:「사회생활상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연구」
▲경제학과=최광부교수:「지하경제의 현황과대책」
▲독일어 교육과=황종인 부교부:「한·독어 대조문법」
▲한국어 교육과=김형필 조교수:「식민지시대의시정신연구」
▲화학과=김형래조교수:「Formaldehyde의 광분해 초기 과정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대학원=이영환부교수:「합리적인 시스템개발 기법의 정립」

차별제 임금(?)

○…사표(師表)를 사표(死標)로 만들려는 외도가 학원자율을 사장(死藏)시키면서 드러나 이단어 지성흡산은 분개.

원인인즉, 교수님들의 연구비지급·승진을 학생에 대한 지도능력에 따라 차별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일전 문교부의 발표가 있었던바, 아마도 최근 「임금투쟁설」의 영향이 엉뚱한 곳에 미친 모양.

그러나 학원은 변함수 없는 진리실천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 흡산의 학원자율수호를 위한 민주열기만이 해결책.

○…입학식날 시위도중 한흡산이 학생과장을 각목으로 때렸다는 보도가 알려져 크로니클자 진상규명에 나서보니, 사건인 즉, 학내 시위를 예상하고 장검해 있던 장조들과 「사전에 시위를 예방하라」는 당국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나온 교직원과의 구별이 안돼 일어난 일인지라.

한 가족의테두리를 갈라놓으려는 당국의 부분별한 「이간」병통에 학생·교수·교직원모부의 노력으로 대학의 자체 분열적인 모습을보이는 우를범해서는 안될터.

○…「우선 지어놓고 보자」라는 식의 학교당국의 치졸한 행정이 그대로 왕산골에서 재현되어 흡산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준공된지 몇년안된 3층 4층에서 옥상의 눈녹은물이 새어 나오는가하면 1층의동앞 골목에 조성된 쉼터에 멋쩍게 의자 몇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것이 이유인바 이에 모름산할 「지난해 백시교 지진때 미국에서 지은건물은 건재했다는 사실을 떠올릴때 이러다간 왕산골공사도 외국건설업체를 초빙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마디.

○…신입흡산과 선배흡산간의 화기애애한 환영회가일부 흡산들의 호화판행사로 미세르바 여신의분노를 자아냄.

동문회 과별 환영식 장소를 호텔레스토랑에서부터 고급요정까지, 금액은 몇시간만에 기십만원을 뿌려 흡산의 른손(?)을 유감없이 발휘했던것. 민중시대의 지식인임을 자부하는흡산스스로가소비, 향락, 퇴폐적 환영회는 지양돼야 한다는것이 대다수지성흡산들의 중론(衆論).

○…지난주는 외대가 망신살이 뻗쳤는지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정신없었던 한 주.

개강 첫날부터 학생이 교직원을 구타했다 하여 롯사 맘들로부터 원성을 사더니 며칠후에는 5일간지에 게재된 본교 P교교수의 소신발언(?)에 사방에서 항의가 빗발치는등 학생·교수의 장단가락에 애꿎은 「외대」만 작살났던 것. 그밖지 않아도 전시(戰時)(?)에 액운까지 겹쳐 첫출발이 영 개운치 않으니 차제에 크로니클자매 고사나 한번지내야겠다.

고시래~

이 사람

오 충 환
<「외대」지 편집장>

"대학문화는 비판속에서 형성돼"

늘 이맘때면 손에 쥐어지던 두툼한 「외대」지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궁금해하는 학생들 보다 오히려 더욱 안타까와 하는 사람은 「외대」지편집장 오충환(PH·4)군이다.

『졸업식때를 배부될 예정이었으나 보람을 거둔다는 일이 그리 쉬운일만은 아니었던지 해한권 내는것이 이리도 어렵다』며 허탈한 웃음을 짓는 오군의 모습에서 그간의 작업에서 쌓인 피로와 앞으로 책이 배부되기까지있을 토다른 난고를 느낄수 있었다. 올봄이 서강대 교지가 배포금지됐고 한양대도 원고에 수정이 가해졌던것을보면 앞으로 「외대」지의 배부도 쉽지만은 않을것이다.

작년 한해동안에만도 세명의 편집장이 차례로 구속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네번째로 대권을 인수받은 오군은 『8월말에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한다.

『이번 교지는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대학에서 학술적인 풍토와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박필때 대학인의 보다 실천적인 지성가 나타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오군은 『외대는 아직 연구하는 자세가 정착되지 못한것 같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이번 「외대」지의 내용을 가능한한 학교내에서 소화하려고 했으나 애를 먹었다며 교내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풍토를 못내 아쉬워 한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현 언론풍토에 대해 오군은 『제도언론이 진정한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대학내에서의 단대지나 교지등을 통해 공동체의식은 물론 문제제기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대학문화는 올바른 비판속에서 형성될수 있다』고강조한다.

지난 1월에는 인쇄작업등 가장 바쁠때 못하지 않게 병장수술까지 받은 오군은 틈을 내 추스리기도 전에 학교로 달려와야했던 일등그간의 고충을 얘기한다. 『그동안홀린말이 현되지 않게 교지가 「제대로」 배부되고 이한권의 책이 외대문화의 거름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오군의 자신에찬 모습에서 앞한 「외대」지가 나올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임재형기자>

□독자추신

대학촌 특색살려야

오 형 근

외대 만큼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성향이 뚜렷하지 못한 대학도 드물것이다.

그래도 남아왔던 「소수정예」나 「어학만을 할줄아는 샐러새」라는니 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별명조차 학교의 양적비대가 질적비대를 동반하지 못해 사라져버린지 오래다. 학생들의 성향도 「외대니까 서구적이다」라 표현한다면 비약이 심한 것일엔 틀림없다. 그러나 본교의 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교만의 고유의 그 뚜렷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누군가가 선뜻 규정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데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본교의 특성의 부재는 학교의 건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른캠퍼스는 이미 다 지어졌고 더도 없으나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용인캠퍼스의 경우도 각 강의동의 특성이 없이 지나치게 실용적이라는 평을듣고 있다.

물론 학교의 건축물이 대학의 참모습과 질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십년, 몇백년을 내다 본다는 마당에 있어 이왕이면 학교의 모습에 맞는 「대학촌」의 형성을 기획해야 함은 당연한 듯 싶다. 아직까지 「유아기」의 용인 캠퍼스라고 하지만 실용성만을 추구할 만큼 어느 정도의 기반이 뒤덮어 졌다고 볼수 없다.

왕산에 다니는 학생의 한사람으로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사학 (私學)이 갖는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80만평의 캠퍼스를조성하면서 다른 대학의 모습을 참조하고 연구하여 앞으로는학생회관이면 학생회관답게 그리고 도서관이면 도서관답게 그 나름대로 「외대」 를 유형화시킬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것이다. 전처럼 이문동의 도서관이 강의동이 되었다가 학생회관이 되었다가 하는 무계획의 「학람」 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신입생이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부족한 시설을 보며 「거시적인계획」을 요구하는 이는 다만 나뿐만의 욕심은 아니라 보여진다.

<어문·Sh·3>

유옥경양 합격

국비 장학생 선발시험

2월중 있었던 문교부주관 국내국비장학생 선발시험에서 본교에선 처음으로 유옥경(사회Hi·3)양이 선발되었다.

전국 4명 합격자중 한명인 유양은 차후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게 되며, 졸업후 희망에 따라 국내연한위원회나 박물관에 취직이 보장된다.

알 림

본보 기획부에서는 학교시설이나 각기관의 문제점 학내 제반사항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견해를「독자추신」난을 통해 받고 있읍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매수 : 5~6매
· 접수장소 :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309호
용인캠퍼스제4강의동 402호

고 침

제434호 학위수여식기사중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자 44명을 24명으로 바로잡읍니다.

움직임

<교수동정>

▲정치외교학과=민만식교수: 명동 유네스코에서 지난 2월15일 개최된 「한국 이베로아메리카학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 「한국 이베로아메리카학회」 사무실은 중남미문제 연구소에 임시 설치됨.
▲아랍어과=김용선교수: 본교 출판부에서 <아랍문화사>발간예정.
▲일본어과=한미경조교수: 동경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 문화 연구소의 객원교수로 초청되어 한·일 양국어 경어(敬語) 대조 연구를 위해 일본 방문, 3월 1일부터 1년간 휴직.
▲경제학과=한홍순교수: 미국 델라웨어대학에 85문교부 국비해외 파견 연구교수로 파견, 85년 12월10일부터 1년간 휴직.
▲철학과=이화용조교수: 호주 시드니대학에 초청되어 박사학위논문 자료분석을 위해 호주방문, 3월1일부터 1년간 휴직
▲한국어교육과·마인어과=석일균, 최봉호 부교수가 최근을 맞아 본교 교수들이 모인가운데 대원각에서 3월8일 (토) 예수연 (壽宴) 을 가졌다.

<서울캠퍼스>

▲의불회개강법회 3월13일(목) 오후5시 의불법당(4415)
▲부산 내성고 신입생환영회 3월14일(금) 오후5시 상징탑 회비5천원
▲경복고 신입생환영회 3월14(금)오후5시 시계탑 회비3천원
▲배문·서문고등문회 3월13일(목)오후5시 시계탑 회비3천원
▲경희고 신입생대면식 3월14일(금)오후5시 상징탑
▲성신동문회 3월15일(토)오후2시 암스텔밥
▲전라고 신입생환영회 3월13일(목)오후5시 상징탑 회비 3천원.
▲숭실고 동문회 3월14일(금) 오후5시 분수대 회비4천원.

<용인캠퍼스>

▲순천고 신입생환영회 3월11일(화)오후5시30분 어문대식당 회비4천원(신입생제외).
▲수원 영신여고 신입생환영회 3월13일(목)오후5시30분 어문대 여학생휴게실.
▲대성고 신입생대면식 3월13일(목) 오후 4시 어문대식당 회비 3천원(신입생제외)
▲진해 신입생환영회 3월13일(목) 오후 5시30분 2강의동 식당.
▲문경향우회 3월14일(금) 오후 5시30분 2강의동 휴게실.
▲일본어과 신입생환영회, 3월15일(토)오후12시30분서울캠퍼

■제24회■ 외대 문학상 작품 모집

외대 문단사를 이끌어온 외대 문학상이 올해로 24회를 맞이하였읍니다.

올해도 외대 문학상은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을 고뇌하는 이땅의 참 젊은이,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을 외욕있고 활기찬 창작열로 원고지 가득 메워줄 참신한 문재(文才)를 기다려고있읍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천하는 문학의 대열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마감:11월 15일

△모집부문 : 시 (5편 내외)
소설 (60매 내외)
평론 (50매 내외)
번역 (장르제한 없음 50매 내외)
△접 수 처 :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 309호)
(용인 : 제 4강의동 402호)
△심사위원 · 상금 : 추후발표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삼양사의 집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마라톤의 승자는 관중들로 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전 구간을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
마라톤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며,
마라토너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중들로 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삼양사의 연구·노력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삼양사는 1924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연구·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객여러분의 격려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진취적인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읍니다.

삼양사

주요생산품 ●설탕 ●배합사료 ●수산물 ●축산 ●이온교환수지 ●견방사(Silk) ●폴리에스텔 SF ●폴리에스텔 FIL

FBS 신입국원 모집

본교교육방송국(FBS)이 제38기 수습국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제작부·기술부·아나부·보도부이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방송국(시청각교육원 3층)에서 직접 하며 시험과목은 상식, 음악, 논문이고 기술부는 기술, 아나부는 음성테스트가 첨가된다. 시험날짜는 1차—3월17일(월), 오후5시, 2차(면접)—3월18일(화), 합격자 발표는 19일(수)이다.

민중시대의 해방된 만화를 위하여 <두번째>

만화 매체의 독자성과 보편성

1. 만화매체의 등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만화는 작품의 대량생산에서 오는 만화의 산업화라고 말할 수 있다. 곧 80년대에 접어 들면서 출판문화의 양적인 증가는 대중을 위한 매체, 가장 대중선호적인 만화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대중매체로서 만화의 등장은 루텐베르크의 시각적시대에서 부터이고 만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으로 현대화의 발달과 아울러 시작되었다. 대중만화의 「대중」은 mass와 public으로 들다 대중이라고 불리어 오는데 public은 인쇄기술의 발명에 따라 나온 말이었다. 아무튼 만화는 현대화화와 인쇄매체의 복합체 양상을 띤 가장 대중 복제적인 시각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인쇄매체의 발달로 인간사회에 혁명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을 때 인간은 처음으로 혼자서 보고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개인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인 관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산업화 시대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를 보고 「매부른」은 자본주의, 산업주의의 전문화및 대중사회는 모두 루텐베르크 시대의 산물이라고 규정 하기도 하였다.

만화는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강력한 풍자매체로서 인쇄술의 발달로더욱 그 힘이 확산되어 갔다. 이때부터 만화는 코믹과 풍자를 통한 자유분방한 풍자적 요소를 갖고 오늘날 시사만화의 독자성을 이루어 온다.

2. 만화매체의 운동성 확보를위하여

80년대 들어서 만화매체가문화운동의 부분운동으로 매체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실지로 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의 영향에서였다.

만화의 장점이 다른 매체보다 빠른 시간에 전달될수 있는 운동성이고 보면 만화의 매체적 전달력은 문화운동에 있어서 종합적 홍보 매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또한 만화의 매체역할은 살이라는 실제적 관계속에서 보다 변증법적 합일을 위한 대중의식용의 매체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만화가 문화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보와 대중화산을 꾀한 목적의식적 선전 형태의 새로운 매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음을 알수 있다.

예컨대, 80년대 미술운동의 크나큰 성과 속에서 이루어진 만화매체의 부각은 저륜적인 문화운동에서 여실하게 보여준 문화운동 내부적 동질성을 가한 타문화 매체와 장르의 확대된 시도였다고 말 할 수 있다.

만화란 광범위한 삶의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여러갈래의 시각언어를 밀도있게 집약시킨 만문(漫文)이다. 그러므로 만화는 대중의 공동체의식과 생리에 강한 매체로서 미적 리얼리티를 갖춘 메시지라고 볼수 있다. 만화가 갖는 내용과 형식은 품격과 절제된 사적예술수단이 아닌 관계로 인해 신선한 충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만화가 갖는 내용과 형식은 품격과 절제된 사적예술수단이 아니기때문에 신선한 충격과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상업취향에 빠져 비절제성과 공격성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증으로 만화의 장점으로 인한 상업취향에 빠질 우려도 많다. 만화는 자본주의 매체로서 속수적이고 요설적이라는 (대중심리에 따른)비절제성과 공격성을 지닌다.

자본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행위가 일탈, 상업적 언어로 대중을 지배하는데 이러한 산물로서 신상품, 광고, 스포츠 등이 만화로 심볼화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예술적 절제와 심화를 요구하지 않는 만화의 간편성은 소비지향적 경향이 짙기 마련이다. 이런 상업적 욕구에 부합하는 만화가 「극화」라는 상업만화이다. 하여튼 만화는 지적 예술양식이 반발한 대중적 예술양식이다. 그러므로 만화는 세련된 형식성의 반외어라는 측면에서 가장 민중화 호흡할 수 있는 민중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의 시대라고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강력한 독자기능을 갖는 매체로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만화의 보편적 형태는 문자와 그림이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전달하는데있다. 만화가 갖는 전달성은 풍자적 요소와 소설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만화화시킨 동시적 드라마이다. 특히 긴장감로의 현실을 함축력있게 구사하는데있어 만화만큼 탁월한 독자성을 갖고있는 매체는 흔하지 않다.

80년대 보여진 만화의 독자성은 이제 잔여적이고 부차적인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할 제단적인 만화문화운동의 형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실상황의 극복에 의지로보여졌던 만화매체는 오늘에 있어 하나의 사회적 과정인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적 과정에 생산, 재생산의 매개적 관계에서 중폭되어 왔던바 문화운동의실천방향으로 방향성의 확인을 새로 작동하는것은 이제 당연하게 평가받아야 하겠다.

그동안 만화와 대중과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대략 대중의 태도와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변화보다 대중의 선유성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만화가 많았다.

그리고 만화의 메시지에 따른 대중은 단기적이고 단면적인 효과를 나타내어왔다.

이것은 앞으로 만화의 대중접근이 단선적 회로에서 장기적 기능으로의 매체역할을 요구한다. 만화가 단순매체로서 자극→반응의 피상적이고 병아적 피하주사이론을 계속 고수한다면 만화는 대중소비물로서 인식될 뿐 아니라 보편구조의 매체화산은 기대할기 힘들 것이다. 만화매체란 문화운동 구조에서 실천적 전개작업으로 그 전달력에 있어 전파및 설득력은 분명 강하다.

만화의 특성을 보면 첫째,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에 준응(Conform)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저널과는 밀착된 관계속에 있다. 결깨로 만화는 문화사회학에 강하게 준응하기 때문에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규범적 행위를 공개고발, 풍자하여 일탈행위에 대하여 극적 사실을 비유한다. 다시말해서 기존하는 사회체제가 합법성과 영속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로 사실적 진실에 입각하려 한다.

이에 대표적인 만화가 신문만화이다. 주로 한칸짜리 만평은 정치면에 게재하면서 네칸짜리 연재만화는 사회면에 게재한다. 신문만화를 잠간 살펴보면 시사만평은 보편적으로단순한 선과 형식을갖고 시사를 소재로한다. 또한 만평은 예술표현에 있어 강렬적이며 뛰어난 상상력을 요구한다. 다음은 네칸짜리만화로, 전반적 현실문제를 만화주인공을 통하여주변 삶속에서 반응을 나타내며 시사만평의 확대 해석이라 할 수있다.

세계로 만화의 특성은 대중을 사로잡는 유인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서점가에서 읽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만화방에서 소홀되는 만화가 일반서점가로 확대되고있다. 자연 만화의 폭증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소비문화적 중독을 일으키며 학문적인 것, 예술문화적인 것은 피하게되면서 현실도피를 위한 정감적 내용이 이러한 일련의 연구작업은 자율적인 3개의 소분과 중 희곡분과와 이론분과만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작업내용을 보면이들은 유실되기 쉬운 현장대본과 대학창작물을 수집, 편집하면서 독창적인 희곡을 창작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극에 관한 자료수집과 이의 상호분석, 결토하는 과정에 주력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개활동은 막연하게 86년 상반기로 잡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정기적인 모임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있지 못한 채 단지 연구작업을 위한 1주 1회의 모임만 있을뿐이고 원활하지 못한 자금관계로 보다 신속적이어야 할 앞으로의 창작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민족극연구회는 이러한 과정에 따라 이와같은 의식이 70년대부터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한 문화패의 형성은 사회의 생산자층을 담당하고 있는 민중을 주체로 이들 삶을 밑뿌리의 전통에 접맥시켜 왔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더 폭넓은 관객유치와 나름대로의 각성이 민중극에 보태어진 전문극단의 세련됨이 접가되면서 기성문화 메카니즘에 편승하기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가 분단된 현실 속에서 민족적 리얼리즘의 대응양식이다. 민족극연구회는 이러한 배경에서생겨난 단체라 할 수 있다. 민족극연구회가 주장하는 민족극이 「과거와 현재 속에서만 실재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잠입없는 지향점」이 되기 위해서는절저한 이론화작업과 공동체를 수반하는 연행활동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본격적 활동에앞선 민족극연구회의 잠복기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은영기자>

◇「농민은 천하의 본」 농민자료집 중에서

3. 만화의 독자성과 보편성

만화매체가 보여준 80년대독자적 방식은 분명 대중성 획득을 위한 대중노선방식이었다. 만화가 내용적으로 얼마만큼분산된 각지역 각계층의 민중들을 구체화 시켰는가에 대한 양질적인 반성은 유보하더라도매체사회적기능과독자성의회복은이느정도학보되었다고본다.

일례로 현장중심의 노동, 근로문제, 가공할만한 핵 공해문제등을 다루어 오면서 이의 전형화와 패로디는 만화정신의 상황적 진실성과 민중적 전형성 그리고 현장성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곽 대 원
<서울미술공동체 연구루무>

지금까지 만화에 대한 문화운동적 실천방향은 만화매체를 유형화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보편적인 독자성을 부여하면서 매체론을 얘기하기는 어려웠다. 다시말해서 시각예술로서 보편 파당성을 피기까지 상황적 자료를 추론하기에는 체계론 자료가 미흡하여 왔다. 특히 80년대 만화운동이 보여 준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인 만화매체는 보편성을 갖기까지 개별적 흐름속에서 충폭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만화가 문화운동에 있어 독자성과 보편성을 갖추기에는 생산적인 면 즉, 양질에 대한 일면의 작업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면서 만화매체의 보편가치를 찾는 것은 본질적으로 만화취도의 가치적 일치에서이다.

만화의 매체화는 장르의 정당성 혹은 장르 해체의 정당성이 대중성 획득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성」으로 회복하는비에서 가능하다.

곧 만화는 운동매체로서 일상적인 유통구조를 마련하는동로가 필수 있도록 해야한다. 분명 현재적 상황에 있어 만화의 매체화는 문화운동의 전체적이고 동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문화운동이란 공개적으로 기존체제의 편재유지와 확보에대항하는 문화운동이다. 이는 운동의 담당과제가 사회 체제에 만연된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제력의 척결에서 그 궁극적 목표를 일삼고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표에대한 문화운동은 분단의 극복을위한 공동체문화를 지향하면서 매체의 유기적 통일을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문화운동의 독자적 기반은 표현자유의 문제와 표현매체, 그리고 공간의 차단과 부족으로 대중노선의 인자적,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만화매체가 이에 대한 극복의 매체로 기동성과 선전성을 부여받게 된 것은 대중적 확산과 동시에 의식확보의 수단 에서이다.

물으로, 만화매체가 계속 독자성과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풍자와 문제의식을 갖는 만화정신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운동 지향적 만화매체는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허락된 3월은 우리들에

김 형 진
<동양·태국어과·2>

그대는
다시 새롭게 솟아난 산들을만나
그들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드러운 지붕아래
하얀 백설을 밟을 수 있는 정결한 3월에
우리 보금자리 주변에 대한 속박함이 없이 만나
우리의 희망인 얼굴에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3월에
우리 모두는 함께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과 눈빛
속에 안겨올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리라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